國譯

德溪祠誌

發刊辭

谷城文化院長 金 吉 榮

그동안 우리고장 先賢들의 貴重한 遺稿인 古文獻을 發掘 이를 年次的으로 國譯·影印·整理·發刊해 왔었으나 그때마다 아쉬움을 떨치지 못한 此際에 이번 西溪(南趂)先生 文集을 心血을 기울여 國譯上梓하여 發刊하게 된 것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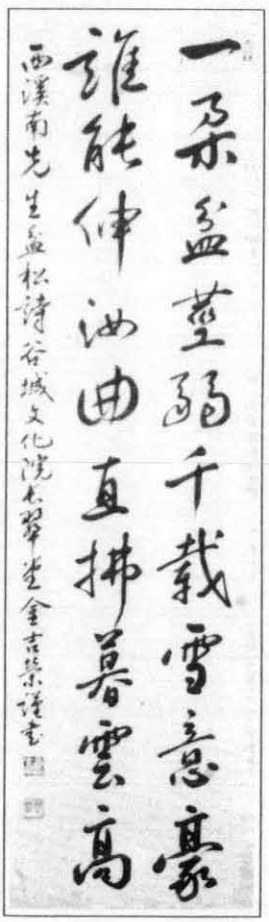
先生은 天賦的인 聰明과 毅然한 氣風이 幼年時節부터 大人의 風度가 있어 先生을 아는 사람이면 將次 大器로서 나라의 棟樑之材라 우러러 稱讚하거나 기리어 말하였다 합니다。더욱이 世俗의 雜多한 榮辱에 超然하였으며 毅然自適하였을 뿐만 아니라 蘆沙 奇正鎭先生에 버금가는 大學者로서 國家의 招致에도 不應하고 오직 學文에만 沒頭하신 篤行과 孝廉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전형적인 선비였으며 本是 先生을 모신 사당이 谷城邑 新月里 월평마을 뒤에 건립된 것을 庚寅年後 梧谷面 梧枝里 德溪祠에 奉安하고 있다。

이렇듯 谷城文化院에서는 未發表 文集과 같은 우리의 所重한 文獻이 滅失前에 發掘整理하여 後學들의 貴重한 研究資料로 活用되어 歷史的 史料로서의 眞價가 發揮될 수 있도록 더욱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도 發表되지 못한 古文獻의 繼續된 研究過程을 通해 더욱 끈기있게 發掘 記錄 保存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을 알뜰하게 가꾸고자 하니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德溪祠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德岩李先生·西溪南先生 祭壇碑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事蹟碑·壇碑·文碑（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西溪南先生盆松詩

德溪祠誌序

天有陰陽陰常勝而陽常不勝人有君子小人小人常勝而君子常不勝古與今有志之士耶以不能無致疑於彼茫茫之天者也然此以一時之逆數言耳若論其久遠而定則君子未嘗不伸伸於百世之公誦小人未嘗不絀絀於萬年之罵戮果孰爲短長也昭昭之理又孰能掩之哉觀於德溪祠可知已祠在浴川之通明山下即以祀李德巖南西溪兩先生者也粤昔　中廟之世羣宵剌天之亂終能啓北門之禍而靜冲以下諸賢竄戮殆盡何其慘也嗚呼彼衰貞景舟之徒方其得志昂首伸頸若將與天壤共榮然不須更之頃盡歸幻滅獨當日羣賢如兩先生在彙征之列者並蒙伸雪榮及泉塗迄至于今芬苾之薦在在駿奔此祠即其一也祠之成既有年矣而祠不可以無誌故以儒林代表而典校盧君甲泳以本孫代表而李君一根共裒稡爲一編題其籤曰德溪祠誌凡祠之殿堂門廡湢之

侈其觀揖讓進退升降之習其儀與夫山川拱圍之勢花木四時之景以至祠之耶以不可不爲之建之由維持之耶以不可不爲之備之策覽者可以自得之矣不必言獨於陰陽升降邪正進退之際禍福循環榮辱久暫之機苟求其故必有見乎天理民彝出於公共而盛衰強弱不與焉則亦可以知耶勉矣此二君耶以纂輯是編之意也

時上章閹茂姑之下澣月城金種嘉謹序

德溪祠誌序(덕계사지 서문)

하늘엔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이 항상 이기고, 양이 항상 이기지 못하며 사람은 군자와 소인이 있는데, 소인은 항상 이기고 군자는 항상 이기지 못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뜻있는 선비들이 그 까닭에 대한 의심을 망망한 하늘에 두지 않은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의 역수(逆數)로 말한 것이요, 만일 오랜뒤의 일을 논하여 정한다면 군자는 일찍부터 백대가 지나도록 공론을 쫓아 사람을 천거하는 자리에서 피어나지 않음이 없었고 소인은 일찍부터 만년이 지나도 매도되어 물리쳐지지 않음이 없었으니 과연 누가 짧고 긴것이 될 것이며 밝고 밝은 이치를 누가 능히 가릴것인가。 덕계사를 보면 가히 알것이다。 사우(祠宇)가 욕천(浴川)의 통

명산 아래에 있는데 이덕암·남서계(李德巖·南西溪) 두 선생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옛적 중종(中宗) 때 소인배들의 하늘을 찌르는 난으로 마침내 북문(北門)이 열리는 화를 당하여 조정암·김충암(趙靜菴·金冲菴)이하 제현들이 귀양가거나 주검을 당하여 거의 다 없어지니 그 얼마나 슬픈일인가、아ㅅ 저 남곤、심정、홍경주(南袞、沈貞、洪景舟)의 무리가 바야흐로 그 뜻을 얻어 머리를 쳐들고 목을 펴 장차 천지로 더불어 같이 영화스러울 것 같이 하였으나 그 러나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 환상처럼 덧없이 사라지니 유독 그날 여러 어진이들이 두 선생처럼 한꺼번에 조정에 들어가는 대열에 있었던 자들이 아울러 원한을 풀고 영화가 무덤에 까지 미쳐 지금까지 제사를 받드는 것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돌아가니 이 사우(祠宇)도 곧 그 하나다。사우(祠宇)가 세워진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기로 사우(祠宇)의 역사를 기록하는 지(誌)가 없을 수 없는고로 유림대표로 전교노군갑영(典校盧君甲泳)과 본손대표로 이군일근(李君一根)이 공동으로 자료를 모아 한편의 책을 만들고 그 이름을 덕계사지(德溪祠誌)라 하다。무릇 사우(祠宇)의 신실과 문칸이나 사랑채며 주방이나 목욕탕등 그 미관의 화려함과 웁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며 오르고 내리는 법칙을 익히는 것과 산천이 외워싸는 형세와 꽃과 나무의 사시절 경치와 사우(祠宇)를 세우지 않으면 안될 이유와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비책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보는자는 가히 스스로 알아질 것이다。많은 말이 필요없이 홀로 음과 양과 오름과 내림과 사특함과 바름과 나아감과 물러가는 시기와 화와 복이 돌고 돔과 영화와 욕이 오래되고 잠깐이 되는 기회에 있어 진실로 그 사유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떳떳함이 공공(公共)에서 나오고 성하고 쇠잔하고 강하고 약한것이 저절로 되는것이 아님을 볼수 있을 것인즉 또한 가히 힘써야 할것을 알것이니 이것이 두 사람이 이책을 편집한 뜻이리라。

庚戌(一九一〇)年　月　日　月城 金種嘉 謹序

德溪祠誌序

惟我德巖西溪兩先生既尊慕之且俎豆之矣誌又何爲而作也夫人生而有事事起而有跡跡陳而文作理之常也建此祠宇歲月久矣人事積矣誌之作也盖亦晚矣余嘗讀上古史於檀箕之編未嘗不掩卷而長嘆何其多闕文乎檀君是我東國開國之祖也箕子是文化之宗也以文獻之不足近世史家至謂檀君殆神也不可必其有人箕子無東來日遂幷三一之誥井田舊制歷然可信者而不信歸二聖於荒唐棄二千有餘年於虛無之先天其亦不思也已今德巖李先生抗章於雷霆之前諫諍於鈇鉞之下百身贖賢身謫嶺海而不悔西溪南先生深憂群霄之誤國念生民之塗炭憤辭嫉言諷刺氣焰方張之五鬼移逐奔走竟死於瘴霧而百折不屈其忠君尊賢之義憂國愛民之誠貫古今而光乎日月想當日道德文章行誼言論有能淬礪後學陶鑄世教者多矣而幷此闕焉僅此而止焉文

字之有關於人事者豈不重且大歟故余以爲誌之作也盖亦晩矣若使先輩少留意於此豈止此而已哉大凡感生於心然目有見焉耳有聞焉感斯興焉如使不見不聞雖聰明之人安知夫日月之光明滄海之廣大乎昔優孟作孫叔敖衣裳動作而楚王呼其名而欲置其舊職感生於見聞也若是乎惟搢紳章甫固不俟於此而知兩先生之爲兩先生也久矣獨遐陬無耶知識若近世之耶謂史家者尚多耳然則後來之耶興感於目見耳聞各知自善於其身而群才輩出則尊慕之誠俎豆之儀有光于今日也抑不在斯編歟其必在斯編耳顧我賢勞之諸君子勉旃

庚戌五月　日　豊川盧甲泳　序

德溪祠誌序(덕계사지서)

우리 덕암、서계(德巖、西溪) 두 선생은 이미 높이 사모하고 또 제사 지내고 있는데、지(誌)는 또 무엇하려 만드는고 대범 사람이 나면 사업이 있고 사업이 일어나면 자취가 있고 자취가 베풀어지면 글이 지어지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이 사우(祠宇)가 세워진지도 세

월이 오래되고 사람의 일도 쌓여져 사지(祠誌)를 만드는 것은 대개 늦은 셈이다。내가 일찍 상고사 단군이나 기자조선편을 읽을 때 일찍 책을 덮고 길게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어찌 그 빠진 글이 많은가 단군은 우리나라 개국의 조상이요 기자는 문화의 종주였는데 문헌이 부족하여 근세 사가들이 단군은 신이라 필연코 그 사람이 있지 않았고 기자(箕子)도 우리나라에 온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르고 드디어 三一의 고(誥)함과 아울러 정전(井田)의 옛 제도가 역연히 믿을만 하여도 믿지않고 두 성인을 황당한 곳에 돌려 二千여년의 역사를 허무한 선천에 버리니 그 또한 생각지 못함이라 이제 덕암 이선생(德巖 李先生)은 격렬한 천등 앞에서 항거하고 형틀 밑에서도 간하며 몸을 바쳐 어진이를 속제케 하려다 바닷가로 귀양 갔으나 후회하지 않았고 서계 남선생(西溪 南先生)은 소인배들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을 근심하고 백성들이 도탄에서 허덕이는 것을 염려하여 분개하는 말과 질시하는 말로 풍자하고 기염을 토하며 한창 설쳐대는 오귀(五鬼)를 쫓아 내는데 분주하다가 마침내 악기를 품은 안개속에서 죽게 되어도 백절불굴하니 그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진이를 존경하는 의리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은 고금을 통하여 일월처럼 빛나도다。그 당시 도덕과 문장과 행의와 언론을 상상컨데 능히 후학을 면려케 하고 세상을 도야함이 많았는데도 이들이 없어지고 겨우 이에서 그 치니 문자가 인사에 관계가 있음이 어찌 중하고 크지 않으랴 그러므로 나는 지(誌)를 만드는 것이 또한 늦었다고 하겠다。만일 선배들이 조금만 이에 뜻을 두었다면 어찌 여기에만 그쳤으리요 대개 감정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나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이 흥을 느끼련만 만일 보지않고 듣지 않으면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어찌 해와 달의 빛나고 밝음과 푸른바다의 넓고 큰것을 알 것인가。

옛날 우맹(優孟)이 손숙오(孫叔敖)의 의상을 지어 입고 동작하니 초왕(楚王)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옛 직책을 두고자 한것은 느낌이 보고 듣는데에서 생김이라 이제 벼슬아치나 선비들은 진실로 이를 기다리지 않아도 두 선생이 된것을 안적이 오래되었다。유독 시골의 지식이 없는자나 근세의 사가라고 하는자 아직 많다。그러즉 뒷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느낌을 일으키고 각자가 스스로 그 몸을 선하게 할줄 알아서 여러 재사들이 배출한다면 높여 사모하는 정성과 제사지내는 의칙이 오늘날에 빛이 있으리니 어찌 이 책에 있지 않을 것인가 반드시 이 책에 있을 것이다。돌아보건데 현로한 제 군자는 힘쓸지어다。

庚戌(一九一〇)年 五月 日 豊川 盧甲泳 序

德溪祠誌序

惟谷城縣之德溪祠直德岩李先生西溪南先生妥享之所也粤昔純廟乙亥春沈候文永氏與一鄕章甫就其縣西鵠山下南先生遺墟建西溪祠春秋享之越三年戊寅李候舒氏並享德岩先生俱以己卯名賢同被士禍初配海南後移此土因居焉以杖屨之所也高宗戊辰秋以 朝令撤焉多士不忍廢之各出緡錢修契事封壇於院址歲一薦香以寓景仰之慕往歲乙巳春士論齊發建院於縣南梧枝洞祠曰德溪堂曰講義於是乎籩豆有楚講學有所矣盧君

甲泳李君一根有志好義之士也既有賢勞於院役又復蒐輯其遺事經歷爲祠誌一局編既成屬余弁文余惟兩先生道德節義炳炳然如日月巍巍乎如山岳固無關於誌之有無而將如天下萬世共知衛正升私之義而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道賴以存焉其於世敎豈曰小補也哉

上章閹茂立秋節候　　青松　沈相浩　謹序

德溪祠誌序(덕계사지서)

곡성군(谷城郡)의 덕계사(德溪祠)는 곧 덕암 이선생(德巖 李先生)과 서계 남선생(西溪 南先生)의 제사지내는 곳이다。옛적 순조 을해(純祖 乙亥) 一八一五年 봄에 심군수 문영(沈郡守 文永)씨가 고을 선비들과 같이 그 군의 서쪽 초산(鷦山)밑 南선생 유허지에 나아가 서계사(西溪祠)를 세우고 추추로 제사 지내다가 三년이 지난 戊寅(一八一八年)에 이군수 서(李郡守 舒)씨가 덕암선생(德巖先生)을 함께 제사 지냈다。기묘사화(己卯士禍)때 명현으로 같이 사화(士禍)를 입었는데 처음엔 해남(海南)으로 귀양 갔다가 뒤에 이 땅으로 옮겨 여기에서 살면서 쉬시던 곳이다。高宗 戊辰(一八六八)년에 조정의 명령으로 훼철되니 많은 선비들이 차마 폐하지 못하고 각자 꿰밋 돈을 내놓아 계를 닦고 서원의 유허지에 제단을 세워 일년에 한번씩 제사지내며 높은 덕을 우러러 사모하게 되었다。지난해 乙巳(一九〇五)년 봄에 선비

들의 논의가 발의되어 서원을 군의 남쪽 오지동(梧枝洞)에 세우고 사우(祠宇)를 덕계(德溪)라 하고 강당(講堂)을 강의(講義)라 하니 이제야 제기를 둘곳이 있고 강학할 곳이 있게 되었다。 노군갑영(盧君甲泳)과 이군일근(李君一根)은 뜻이 있고 의리를 좋아하는 선비라 이미 서원(書院)을 짓는 역사에 현로하였고 또다시 그 유사(遺事)와 경력(經歷)을 수집하여 사지(祠誌) 한권을 만들고 책이 완성됨에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니 나는 생각컨데 두 선생은 도덕과 절의가 환히 빛나는 모습이 일월같고 높고 큰 모습이 산악과 같으니 진실로 지(誌)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차 천하만세로 더불어 같이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의리를 알아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어른과 어린이、벗과 벗의 도리가 신뢰되어 존재하리니 그 세상을 가리키는데 어찌 적은 보탬이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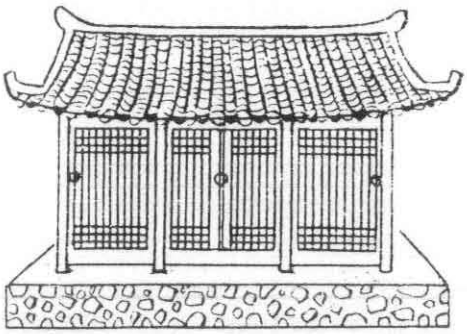
庚戌(一九一〇)年　立秋節　青松 沈相浩 謹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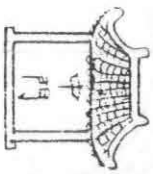
德溪祠誌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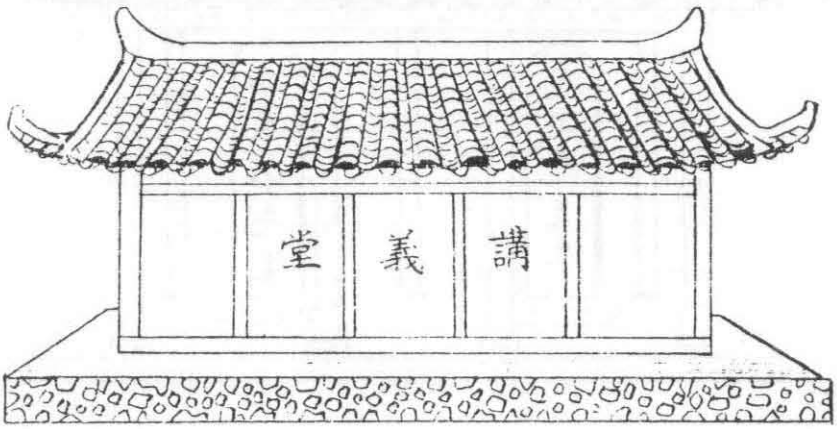
德溪祠全圖……一
祠内神位圖……二
陳設圖……三
德溪祠全況……四
位置
山水
聯享
沿革
建物
祭器……七
祭服……七
祭官……七
享祀日……七
祭物單子……八
壇享祝文……八
告兩先生壇享祝文……九
德溪祠祭享笏……一一
德溪祠移建奉安文……一九
德巖李先生常享祝文……二〇
西溪南先生常享祝文……二一
正義大夫巴陵君府君墓表……二一
正義大夫巴陵君李先生
神道碑銘 幷序……三〇
上疏 西溪南 趎……四四
燭影賦……六二
盆松詩……七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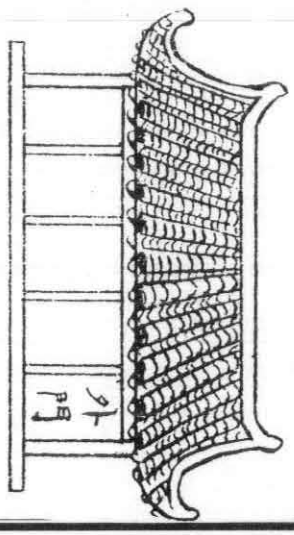
咏雪詩 …… 七三
兩賢祠儀式序 …… 七四
西溪祠序 …… 七五
告巴陵君先生祝 …… 七六
告西溪先生祝 …… 七七
西溪祠重修記 進士吳哲淳 …… 七八
西溪祠重修記 野隱柳正模 …… 八一
回文 …… 八五
西溪壇事實記 …… 八七
德巖李先生西溪南先生
祭壇碑文 …… 九三
西溪壇任員錄 自庚辰至庚戌 …… 九九
德溪祠祠誌跋 唐城洪瀾謹跋 …… 一〇一
德溪祠祠誌跋 德巖先生後孫李一根謹跋 …… 一〇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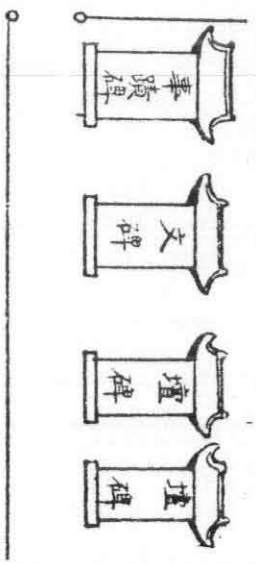
德溪祠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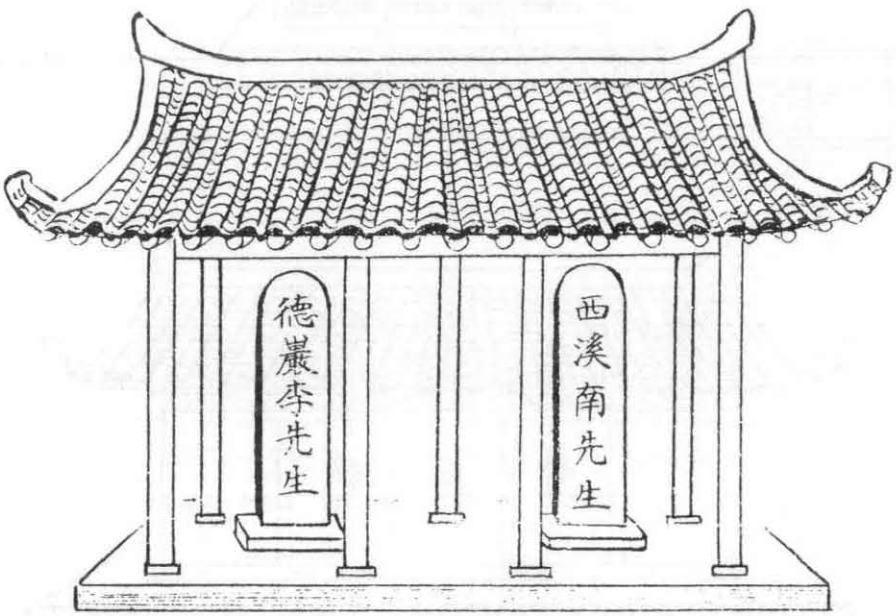








祠內神位圖



陳設圖

左籩　　神位　　右豆

鹿脯　乾棗　榛子　黃栗

稻簠

羊腥

黍簋

豚腥

魚醢　菁菹　片菹　菲菹

幣篚

燭　爵　爵　爵　燭

香盒　香爐

德溪祠全況

位置

全羅南道谷城郡梧谷面梧枝里

位置(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山水

通明山爲一郡鎭山其雄偉磅礴清淑之氣橫絶於南方儘靈峰也自通明北出一支爲德山負德山而望遠之有鷄江穿破清溪洞峽而來縈迴於十里之內轉入馬輪峽裡環抱此山而流近之有錦溪清流素沙連亘鷄江亦可曰二重開眼也祠在德山之下錦溪之上入居其中怳若全山之氣盛而不過於此凡多士之瞻拜是祠者皆曰聿胥叶吉

山水(산수)

통명산(通明山)은 일군(一郡)의 진산(鎭山)이 되는데 그 웅장하고 가득하며 맑은 기운이 남쪽 지방을 횡단하니 진실로 실령스러운 상이다。통명산(通明山)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가지가 나와 덕산(德山)이 되고 덕산(德山)을 짊어지고 멀리 바라보는 곳에 순강(鶉江)이 있는데、청계동(淸溪洞)을 뚫고 좁장하게 흘러와 십리의 안을 돌다가 다시 마윤협(馬輪峽) 속으로 굴러 들어와 이 산을 둘러 보듬고 흐르고 가까운 곳에 금계(錦溪)가 맑게 흐르고 있어 소사(素沙)、연긍(連亘)、순강(鶉江)이 또한 가히 이중으로 눈을 떳다고 하겠다。사우(祠宇)가 덕산(德山)의 아래 錦溪의 위에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살면 어슴프레 온 산의 기운이 성함도 이에 지나지 않을것 같으니 무릇 다사들의 이 祠宇를 첨배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 입을 맞추어 길지라고 하더라。

聯享

第一位德巖李先生 諱璥 巴陵君 ○第二位西溪南先生 諱趎 官典籍

제1위(第一位) 덕암이선생(德巖李先生) 휘경(諱璥) 파릉군(巴陵君)

제2위(第二位)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 휘주(諱趎) 관전적(官典籍)

沿革

純廟十四年甲戌創建○高宗五年戊辰以邦禁見撤○往年庚子復設于右地 本祠創建曾在郡西谷城面新月里西溪先生舊址因多士之論移建于現在地梧枝里

순조(純祖)十四年(一八一四) 갑술(甲戌)에 창건(創建)함○고종(高宗)五年(一八六八) 무진(戊辰)에 국령(國令)으로 훼철됨○지난해 경자(庚子)年(一九〇〇)에 이땅에 다시 세움 (本祠의 創建은 일찍 郡의 西쪽 谷城面 新月里 西溪先生의 옛터에 있었는데 多士들의 論議에 의하여 現在地인 梧枝里에 移建함)

建物

祠宇三間 德溪祠三大字揭于祠宇楣間○中門一間○講堂四間 中堂一間有左夾室右夾室書講義堂三大字揭楣間○直舍四間○壇碑士座○事蹟碑一座

사우(祠宇)三間 (德溪祠라 쓴 세 큰 글자는 祠宇의 처마에 걸어 놓았음)○중문(中門) 一間○강당(講堂) 四間 (中堂一間은 왼쪽 협실에 있고 오른쪽 협실에 講義堂의 세 큰글자가 처마에 걸렸음)○직사(直舍) 四間○단비(壇碑) 四坐○사적비(事蹟碑) 一座

祭器

簠(木製)○二　簋(木製)○二　爵(鍮製)○六　坫(鍮製)○六　牲俎二　竹籩八　木豆八　幣篚二
燭坮(鍮製)○四　香盒(鍮製)○二　香爐(鍮製)○二　香案二　尊(鍮製)○一　勺(鍮製)○一　祝板一

※尊(술통이)、勺(술 뜨는 구자)

祭服

黑團領五　黑帶五　儒巾三十

祭官

初獻○亞獻○終獻○陳設○執禮○祝○奉香○奉爐○奠爵○
奉爵○司尊○贊引三人

享祀日

每年春三月二十一日

祭物單子

稻未 一升 黍米 一升 淸酒 二升 鹿脯 無則代以牛脯○五十條 鹿醢 無則代以肉醢二斤 菁菹 二束 芹菹 二束
榛子 無則代以栢子一升 黃栗 二升 乾棗 一升 魚醢 二升 豚腥 二頭 羊腥 二頭 幣布 二尺 黃燭 二雙
檀香 二封 祝文紙 一張 靑筆 一柄 眞玄 一丁 洗巾布 一尺

※ 稻米(맵쌀)일승(一升)、黍米(조쌀)일승(一升)、청주(淸酒)二升、鹿脯(사슴포)[없으면 우포(牛脯)로 대용(代用)○五十條]鹿醢(사슴육장)[없으면 肉醢)로 代함 二斤]菁菹(순무 무우와 비슷함)二束、芹菹(미나리)二束、榛子(개암나무 씨)[없으면 잣나무씨 로 代 함]一升、黃栗二升、乾棗(마른대추)一升、魚醢(고기육장)二升、豚腥(돼지 생것)二頭、羊腥(염소 생것)二頭、幣布 二尺、黃燭 二雙、단향(檀香)二封、祝文紙 一張、靑筆(붓)一柄、眞玄(참먹)一丁、洗巾布(세수하는 수건)一尺

壇享祝文

維歲次云云 敢昭告于
西溪南先生之 神惟
先生文學夙詣節義惟性鄕黨俊髦泮林謇正務得道本動在險中

遐代遺址滿山高風親灸莫冀瞻依不窮後學仰止駿奔盡衷潔牲
齊醴虔誠式同尚
饗

壇享祝文(단향축문)

유세차운운 감히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의 신(神)에게 고(告)하나이다。오직 선생(先生)은 문학(文學)이 일찍 이루어지고 절의(節義)는 오직 천성(天性)이시니 향당의 뛰어난 선비며 학당의 사림(士林)이 충직하고 곧으며 도(道)의 근본을 얻는데 힘쓰고 움직임이 위험한 속에 있었으며 먼 대(代)를 이어온 유허지며 산에 가득한 고풍(高風)이로다。친히 배우기는 바랄 수 없으나 앙모하여 의지하기는 다 할수 없고 후학들이 우러러 보며 바쁘게 충심을 다하여 깨끗한 생(牲)과 정제된 술로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바치오니 흠향하소서。

告兩先生壇享祝文

伏以君民唐虞師友靜沖有學有守百世彌崇祠毁而壇用寓瞻仰
歲一薦馨庶垂鑑

饗　右德巖李先生

伏以文譽夙彰節操彌堅燭賦松試可肅懦頑有壇瞻掃陟降在玆歲薦芬苾尚其饗之　右西溪南先生

告兩先生壇享祝文(고양선생 단향축문)

엎드려 생각컨데 군민(君民)은 요순시대요 스승과 벗은 조정암(趙靜菴) 선생과 김충암(金冲菴)선생이로다。학문이 있고 수절함이 있으니 백대토록 더욱 숭상하도다。사우가 훼철되어 제단을 만들어 써 우러러 보며 한해에 한번의 제사를 올리오니 거의 내리셔서 조감하시고 흠향 하소서。

우　서계남선생(右　德巖李先生)

엎드려 생각컨데 文學의 명예는 일찍 들쳐나고 절개와 지조는 더욱 굳건하였도다。촉영부(燭影賦)와 분송시(盆松詩)는 가히 나약하고 완고한이를 경계하였습니다。제단이 있어 우러러 보며 청소하니 오르고 내릴곳이 여기에 있어 해마다 제사를 지내오니 흠향 하소서。

우　서계남선생(右　西溪南先生)

德溪祠祭享笏

獻官以下諸執事及諸學生俱就門外位三唱各就位○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盥手帨手○仍詣祠內○點視陳設○還出階下位○祝及諸執事詣盥洗位○與手帨水○仍詣神位前○開櫝開簾篕○降復位○祝及諸執事皆再拜無唱○贊引詣初獻官之在○白有司謹具請行事○獻官以下在位者皆再拜贊唱○行奠幣禮○祝及奉香奉爐詣祠內位○贊引引初獻官○詣德巖先生神位前○跪○奉香擧香盒○置于香案之東○奉爐擧香爐○置于香案之西○奉香擧香盒○置于香案之東○奉爐擧香爐○置于香案之西○獻官三上香○祝擧幣篚授獻官○獻官執幣還授祝○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仍詣西溪南先生神位前○跪○奉香擧香盒○置于香案之東○奉爐擧香爐○置于香案之西○獻官三上香○祝擧幣篚授獻官○獻官執幣還授祝○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贊引引獻官諸執事降拜禮位○初獻官再拜

贊唱○還出序立位○行初獻禮○司尊奉爵詣尊所北向立○獻官奠爵詣祠內位○贊引引初獻官詣尊耶西向立○司尊擧冪酌酒授奉爵○獻官北向跪○奉爵以爵授獻官○獻官受爵還授奉爵○獻官俯伏興○仍詣德巖李先生神位前○跪○奉爵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奉爵○奉爵授奠爵○奠于神位前○祝詣獻官之左東向跪○讀祝文○訖○獻官俯伏興○贊引引初獻官諸執事降拜禮位○初獻官再拜贊唱○還出序立位○行亞獻禮○司尊奉爵詣尊所北向立○獻爵奠爵詣祠內位○讚引引亞獻官詣盥洗位○盥手悅手○仍詣尊所西向立○司尊擧冪酌酒授奉爵○獻官北向跪○奉爵以爵授獻官○獻官受爵還授奉爵○獻官俯伏興

○仍詣德巖李先生神位前○跪○奉爵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奉爵○奉爵授奠爵○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仍詣西溪南先生神位前○跪○司尊擧冪酌酒授奉爵○奉爵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奉爵○奉爵授奠爵○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贊引引亞獻官諸執事降拜禮位○亞獻官再拜贊唱○還出序立位○行終獻禮○司尊奉爵詣尊所北向立○獻官奠爵詣祠內位○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盥手洗手○仍詣尊所西向立○司尊擧冪酌酒授奉爵○獻官北向跪○奉爵以爵授獻官○獻官受爵還授奉爵○獻官俯伏興○仍詣德巖李先生神位前○跪○奉爵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奉爵○奉爵授奠爵○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仍詣西溪南先生神位前○跪○司尊擧冪酌酒授奉灼○奉爵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奉爵○奉爵授奠爵○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仍詣西溪南先生神位前跪○司

尊舉冪酌酒授奉爵○奉爵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獻爵○獻爵授奠爵○奠于神位前○獻官俯伏興○贊引引終獻官諸執事降拜禮位○終獻官再拜贊唱○還出序立位○行飲福禮○祝及奉爵獻爵奠爵詣祠內位○奉籩豆各一少移故處○贊引引初獻官詣飲福位北向跪○祝以初獻酒授獻官○獻官受爵啐酌○執事受虛爵復於坫○祝詣神位前○取胙肉○東向跪○授獻官○獻官受胙還授祝置于床○獻官俯伏興○仍降復位○獻官以下在位者皆再拜贊唱○行望燎禮○贊引引初獻官○詣望燎位○祝詣神位前○取祝篚○降自西階○置杓坎○可燎○仍降復位○贊引詣初獻官之左白禮畢○獻官以下諸學生皆退○贊引祝及諸執事俱就拜禮位再拜無唱○祝及諸執事詣祠內○闔櫝闔簾簋○撤籩豆○闔門乃退

德溪祠祭享笏(덕계사제향홀)

헌관이하 제집사(獻官以下 諸執事) 및 제학생(諸學生)은 함께 문(門)밖의 자리에 나아가 서시오.(세번부름) 각각 그위에 나아감 ○찬인(贊引)이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고 관세(盥洗)하는 자리에 나아가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인하여 사내(祠內)로 나아가 진설(陳設)을 점검해 보시오 ○도로 계하(階下)의 자리로 나오시오 ○축관(祝官) 및 제 집사들이 관세(盥洗)의 자리로 나아가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인하여 신위(神位)의 앞으로 나아가서 독(櫝)을 열고 보궤(簠簋)를 여시오 ○내려와 제 자리로 가시오 ○축관(祝官) 및 제 집사는 다 재배(再拜)하시오 ○찬인(贊引)은 초헌관(初獻官)의 좌측(左側)으로 나아가시오 ○유사(有司)는 삼가히 갖추어 행사하길 청한다고 아뢰시오 ○헌관이하(獻官以下) 자리에 있는 이는 다 재배(再拜)하시오(이때는 찬인이 창을 함) ○전폐례(奠幣禮)를 행하시오 ○축관(祝官)과 봉향(奉香) 봉로(奉爐)가 사내(祠內)의 자리로 나아가시오 ○찬인(贊引)은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여 덕암선생(德巖先生) 신위(神位)앞에 나아가 꿇으시오 ○봉향(奉香)은 향합(香盒)을 들고 향안(香案)의 동쪽에 두시오 ○봉로(奉爐)는 향로(香爐)를 들고 향안(香案)의 西쪽에 두시오 ○헌관(獻官)은 세번 향(香)을 올리시오 ○축관(祝官)은 폐비(幣篚)를 받들어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폐(幣)를 잡았다가 도로 축관(祝官)에게 주시오 ○신위(神位) 앞에다 올리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인하여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 신위(神位)앞으로 나아가시오 ○꿇으시오 ○봉향(奉香)은 향합(香盒)을 들고 향안(香案)의 동쪽에 두시오 ○봉로(奉爐)는 향로(香爐)를 들고 향안(香案)의 서쪽에 두시오 ○헌관(獻官)은 세번 향(香)을 올리시오 ○축관(祝官)은 폐비(幣篚)를 들어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폐(幣)를 잡았다가 도로 축관(祝官)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찬인(贊引)은 헌관(獻官)과 제 집사를 인도하고 배례(拜禮)하는 자리로 내려오시오 ○초헌관(初獻官) 재배(再拜:찬인은 唱함) ○도로 나와 차례대로 자리에 서시오 ○초헌례(初獻禮)를 行 하시오 ○사준(司尊:술통이 말은 사람)과 봉작(奉爵)은 전소(奠所)로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시오 ○헌관(獻官)과 전작(奠酌)은 사내(祠內)의 자리로 나아가시오 ○찬인(贊引)은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고 준소(尊所)로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서시오 ○사준(司尊)은 상보를 들고 술을따라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북향(北向)하여 꿇으시오 ○봉작(奉爵)은 술잔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받아 도로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인하여 덕암이선생(德巖李先生) 신위(神位)앞에 나아가 꿇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잡아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전작(奠爵)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축관(祝官)은 헌관(獻官)의 왼편으로 가서 동향(東向)하여 꿇으시오 ○축문(祝文)을 읽으시오 ○그치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서시오 ○인하여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 신위(神位)앞으로 나아가 꿇으시오 ○사준(司尊)은 상보를 들고 잔에 술을 따라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잡아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전작(奠爵)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축관(祝官)은 헌관(獻官)의 왼쪽으로 가서 동향(東向)하여 꿇으시오 ○축문(祝文)을 읽으시오 ○그치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찬인(贊引)은 헌관(獻官)과 제 집사를 인도하고 배례위(拜禮位)로 내려오시오 ○초헌관(初獻官) 재배(再拜)[찬인은 창함] ○도로나와 차례대로 자리에 서시오 ○아헌례(亞獻禮)를 행(行)하시오

○사준(司尊)과 봉작(奉爵)은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시오 ○헌관(獻官)과 전작(奠爵)은 사내위(祠內位)로 나아가시오 ○찬인(贊引)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시오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인하여 전소(奠所)로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서시오 ○사준(司尊)은 상보를 들고 술을 따라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헌관(獻官) 북향(北向)하여 끓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받아서 도로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전작(奠爵)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인하여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 신위(神位)앞으로 나아가 끓으시오 ○사준(司尊)은 상보를 들고 술을 따라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잡아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준작(尊爵)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서시오 ○찬인(贊引)은 아헌관(亞獻官)과 제 집사를 인도하고 배례위(拜禮位)로 내려오시오 ○아헌관(亞獻官) 재배(再拜 : 贊引은 唱함) ○도로 나와 차례대로 자리에 서시오 ○종헌례(終獻禮)를 行하시오 ○사준(司尊)과 봉작(奉爵)은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시오 ○헌관(獻官)과 전작(奠爵)은 사내위(祠內位)로 나아가시오 ○찬인(贊引)은 종헌관(終獻官)을 인도하고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시오 ○손을 씻고 손을 닦으시오 ○인하여 준소(尊所)로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서시오 ○사준(司尊)은 상보를 들고 술을 따라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북향(北向)하여 끓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받아 도로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서시오 ○인하여 덕암선생(德巖先生) 신위(神位)앞으로 나아가시오 ○끓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헌관(獻

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잡아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전작(奠爵)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서시오 ○인하여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 신위(神位)앞으로 나아가시오 ○끓으시오 ○사준(司尊)은 상보를 들고 술을 따라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잔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잡아 봉작(奉爵)에게 주시오 ○봉작(奉爵)은 전작(奠爵)에게 주시오 ○신위(神位)앞에 올리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찬인(贊引)은 종헌(終獻)과 제 집사를 인도하고 배례위(拜禮位)로 내려 오시오 ○종헌관(終獻官) 재배(再拜·贊引은 唱함) ○도로나와 차례대로 서시오 ○음복례(飮福禮)를 行함 ○축관(祝官)과 봉작(奉爵)과 전작(奠爵)은 사내위(祠內位)로 나아가시오 ○변두(籩豆)를 받들어 각각 한번씩 조금 고처(故處)로 옮기시오 ○찬인(贊引)은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고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끓으시오 ○축관(祝官)이 초헌주(初獻酒)를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잔을 받아 마시시오 ○집사(執事)는 빈잔을 받아 잔대에 다시 놓으시오 ○축관(祝官)은 신위(神位)앞에 나아가 ○조육(胙肉)을 가지고 ○동향(東向)하여 끓고 앉아 ○헌관(獻官)에게 주시오 ○헌관(獻官)은 조육(胙肉)을 받았다가 도로 축관(祝官)에게 주면 상(床)에 놓으시오 ○헌관(獻官)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일어나시오 ○인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시오 ○헌관이하(獻官以下) 자리에 있는 이는 다 재배(再拜)하시오 (贊引은 唱함) ○망요례(望燎禮)를 行하시오 ○찬인(贊引)은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고 망요위(望燎位)로 나아가시오 ○축관(祝官)은 신위전(神位前)으로 나아가 ○축(祝)과 폐비(幣篚)를 가지고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 ○구덩이에 두고 ○불살으시오 ○이어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시오 ○찬인(贊引)은 초헌관(初獻官)의 왼쪽으로 나아가 예(禮)가 끝났음을 아

뢰시오 ○헌관이하(獻官以下) 제 학생은 다 물러가시오 ○찬인(贊引)과 축관(祝官)과 제 집사는 다 배례위(拜禮位)로 나아가 재배(再拜)하시오(唱이 없음) 축관(祝官)과 제집사(諸執事)는 사내(祠內)로 들어가 ○독(櫝)을 닫고 보궤(簠簋)를 닫으시오 ○변두(籩豆)를 거두고 ○문(門)을 닫고 물러나시오。 끝。

西溪祠移建奉安文

趙敏植

於惟先生義炳日星幷世同德千載遺馨粵昔西溪設院幷享嗟時蔑貞忍見撤饗士議爰奮壇享是設日邁月征於義缺闕立祠俎豆詢謀歸一窃惟梧枝屢臨高躅相土于玆落此祠屋日月之吉惟靈是妥濟濟襟紳遐邇咸造芳魂懿魄俯仰如臨禋祀虔奉伊始自今

西溪祠移建奉安文(서계사이건봉안문)

오직 우리 선생은 의리의 빛남이 해와 별같고 한 세대에 덕을 한가지로 하니 천년을 끼칠 향기로다。 옛날 서계(西溪)에다 서원을 지어 같이 제사 지냈는데 슬프다。 때가 곧음을 멸하여 차마 철향되는 것을 보고 사림(士林)의 논의가 격분하여 제단에서 제사지낼것을 설치하였으나 날이가고 달이감에 의리에 결함이 되어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지내기로 상의할세 하나로

돌아오도다。 다시 생각컨데 오지리(梧枝里)는 여러차례 높으신 스승의 발자취가 다다른 곳이라。 여기에 흙을 돋아 이 사옥(祠屋)을 낙성하니 날자도 길하도다。 오직 영영은 여기에서 편안하소서。 아름답고 훌륭한 선비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다 조력하였으니 꽃다운 혼 아름다운 넋이 부앙(俯仰)하며 다다르는 것 같아 정성스러운 제사를 경건하게 받드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德巖李先生常享祝文

維歲次干支　後學　敢昭告于
德巖李先生伏以　炳然義烈同歸靜冲抗節扶紀鼓舞儒風
謹以庶品式薦明禋尙
饗

德巖李先生常享祝文(덕암이선생상향축문)

유세차간지(維歲次干支)　후학(後學) 모(某) 감히 덕암이선생(德巖李先生)에게 고(告)하나이다 엎드려 생각컨데 빛나는 의열(義烈)은 조정암(趙靜菴)、김충암(金冲菴)과 같도다。 절개를 주므르고 기강을 붙잡아 유풍(儒風)을 고무 하였기로 삼가히 훌륭한 제물로 공경스럽게 밝고 깨끗하게 제사지내니 흠향 하소서。

西溪南先生常享祝文

維歲次干支　　後學　　敢昭告于
西溪南先生伏以　詆刺權奸盆松傳芳凜然千載芬馥愈彰
薦玆芬苾永言無斁尚
饗

西溪南先生常享祝文(서계남선생상향축문)

유세차간지(維歲次干支)　후학모(後學某) 감히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에게 고(告)하나이다。엎드려 생각컨데 권세꾼 간신배를 꾸짖고 분송시(盆松詩)는 꽃다운 이름을 전하여 늠늠하게 천년토록 향기가 더욱 팽창하리라 이에 향기로운 제사를 천거하노니 영원히 썩지 마시고 흠향 하소서。

正義大夫巴陵君府君墓表

曾孫承旨惟信

嗚呼此浴川縣牛谷坊雙龜洞枕午原惟我曾王考正義大夫巴陵君府君衣履之藏也府君諱璥字子振號德巖

太宗王子敬寧君諱裨謚齊簡公大君中年德最高讓寧孝寧嘗受學又爲　世宗師傅是生諱穎福城君初爲守　世祖朝受命問獎湖南所至澄清　睿廟朝以功陞正封君　贈正義大夫是生諱金山金陵君明善大夫亦　贈正義配　贈縣夫人昌原黃氏縣監繼孫女以弘治元年戊申二月二十七日生府君卽我　成宗大王十九年也府君天資溫厚才藝超倫壬申襲爵受令未幾試藝封君陞正義大夫特爲宗室儀表事親極孝丁艱哀毁盡制親墓在西山相距一舍強而每月朔望展省不廢儉約自持清謹是守言議勁直踐履篤實與靜菴趙先生光祖冲菴金公淨爲道義交講明格致誠正之學卓然有致君澤民之志時　上銳意文敎靜菴首先擇用群賢彙征朝野想望至治靜菴嘗論靖國濫勳錄者方今塞利源勵世道莫先於削濫勳己卯冬靜菴爲憲長乃與諫長李成童合啓請削濫勳　上不墟連啓乃獲　允時南袞沈貞以傾險得罪士林居常怏

快遂與洪景舟謀殺靜菴諸賢潛通敬嬪朴氏造飛語流入禁中以爲一國人心悉歸於光祖又誣陳木葉上虫篆走肖爲王四字以煽惑 聖聽至十一月十五日當稟定削濫勳有等差是夜袞貞等從神武門潛入啓趙光祖等謀不軌事機甚迫請有司正罪三更緹騎四出逮捕趙光祖金淨等八人將殺之領相鄭公光弼牽裾泣諫府君卽詣賓廳涕泣極諫曰光祖等唐虞之皐夔稷契願 主上母信讒言且字呼兵判李長坤曰希剛搖尾狐鼠中同害忠良極口切責遂倡率宗室搆進一疏伸救靜菴諸賢語甚激切無所隱諱政院阻格不捧而奸黨含毒極矣靜菴減死竄綾州府君竄海南及李蘋爲諫長李沆爲憲長合啓請加律光祖並書府君及詩山正正叔安瑭金安國李若氷三十九人一紙以啓靜菴賜死之命下而府君及詩山正十有四人並削官爵府君聞靜菴死不勝痛盡而遣弟西原令珣爲文以祭曰擧目人世顧影無儔辛巳冬宋祀連誣告安處謙與

巴陵君璥及詩山正正叔謀殛南袞等遂搆殺安處謙詩山正諸公又議定黨人律府君遂被禁錮盖海南地濱大海瘴霧蔽天人莫不受病而遷客尤甚府君處之裕如顔貌髭髮猶勝昔時戊戌館學儒生李仲南等上疏請收用黨人　上從之乃叙用金安國柳仁淑等府君及安挺申潛尹光齡皆復職放釋府君自海南還至谷城之通明山下山底村而寓居焉時西原令陪從屢請還洛第府君笑曰君亦知山花泉石之樂乎環堵蕭然採艾爲羹以供朝夕明山之艾味甘不莖人頗異之　明廟庚戌十月七日卒壽六十三訃聞自　上有恩賻配縣夫人羅州吳氏　贈羅原君世勳女婦德克備墓附府君同原有一男偕學行薦　除監役不就孫男長鎔次欽季鈺禦侮將軍副司直長房孫一男廋信生進俱中仲房孫二男昌發命發皆早卒季房孫三男景信惟信即不肖止信縣監嗚呼府君以王室之親稟剛方之氣究明新之學與靜菴諸賢志同道合憤不顧身扶正

斥邪遂遭竄逐無所怨悔在謫十九年忠君憂國之誠炳然如丹而衛道勉學之功不以厄窮而有少間也及其蒙還惟有懲毖不就洛第遄軸乎窮山絶磵之濱終爲昭代之逸民而遺後以安之謨亦於是乎在矣府君嘉言懿行世自有公誦而家傳頗散逸多矣不肖懼夫愈久愈泯謹次其生卒梗槩庸刻于碑陰以爲後來者考焉

正義大夫巴陵君府君墓表(정의대부파릉군부군묘표)

아~ 이 욕천현(浴川縣:곡성군(谷城郡)) 우곡방(牛谷坊:오곡면(梧谷面)) 쌍구동(雙龜洞) 오향(午向)에 있는 언덕은 내 증조(曾祖) 정의대부(正義大夫) 파릉군부군(巴陵君府君)의 묘소이다。부군(府君)의 휘(諱)는 경(璥)이요 字는 자진(子振)이며、호(號)는 덕암(德巖)이다。태종왕자 경녕군(太宗王子 敬寧君)의 휘(諱)는 비(裶)요、시호(諡號)는 제간공(齊簡公)으로 대군증(大君中)에서 나이가 가장 높아 양녕대군(讓寧大君)과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일찍 수학(受學)하였고 또 세종(世宗)의 사부(師傅)가 되었다。이가 휘영(諱穎) 복성군(福城君)을 낳으니 처음에 수(守)가 되어 세조조(世祖朝)에 호남(湖南)의 폐단을 알아 보라는 명을 받고 이르는 곳마다 깨끗하였고、예종조(睿宗朝)에 공적(功績)으로 정(正)에 올라 군(君)으로 봉(封)되고 정의대부(正義大夫)에 증직(贈職)되었으며、이가 낳은 휘금산(諱金山) 금릉군(金陵君) 명선대부(明善大夫)도 또한 정의대부(正義大夫)에 증직(贈職)되었다。배(配)는 증

현부인 창원황씨(贈縣夫人 昌原黃氏)인데 현감계손녀(縣監繼孫女)이다。 홍치원년(弘治元年：一四八八) 무신(戊申) 二月二十七日에 부군(府君)을 낳으니 곧 우리 성종대왕(成宗大王)十九年이다。 부군(府君)의 천성적(天性的) 자품(資品)이 온후(溫厚)하고 재예(才藝)가 보통보다 뛰어나 임신(壬申：一五一二)年에 작위(爵位)를 받았는데 명(命)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재주를 시험봐 군(君)에 봉(封)되고 정의대부(正義大夫)에 오르니 특별히 종실(宗室)을 위한 의칙(儀則)의 표현(表現)이다。 어버이 섬김에 효도를 극진히 하고 부모의 주검을 당하여는 슬픔이 극하여 몸이 허약해지면서 예절을 다 하였으며 어버이 묘소가 西山에 있어 거리가 三十里가 짱짱하나 매월 초 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폐하지 않고 검약으로 몸을 가지며 맑고 삼가함을 지키고 말하는 거동이 굳세며 곧고 실천함이 독실하여 정암 조선생(靜菴 趙先生) 광조(光祖)와 충암 김공정(冲菴 金公淨)과 더불어 도의교를 맺고 격치성정(格致誠正)의 학문(學問)을 강하게 밝혀 탁연(卓然)하게 임금을 도웁고 백성에게 은덕을 배플 뜻이 있었다。 때에 임금께서 문교(文敎)로 정치할 마음을 단단히 갖고 정암(靜菴)을 첫번째로 먼저 뽑아 쓰니 여러 어진이들이 모여서 조정에 들어가니 조야(朝野)에서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워 질것을 상상하며 희망하였다。 정암(靜菴)께서 일찍 논하길 정국공신충(靖國功臣中) 훈록(勳錄)이 참람한자들이 바야흐로 지금 이 끝에 막혀 있으니 사회 도덕을 근원적으로 가다듬으려면 참람한 공훈을 깎아 내리는 것보다 먼저 할일이 없다 하고、기묘(己卯：一五一九)年 겨울에 정암(靜菴)이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어 사간원대사간이성동(司諫院大司諫李成童)으로 더불어 합동(合同)으로 상소하여 참람한 공훈(功勳)을 깎을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치 않으므로 계속 상소하여 허락을 얻을때에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경험(傾險)으로 선비들에 재를 얻은지라。 평소 앙심을 품고 드디어 홍경주(洪景舟)로 더불어 정암(靜菴)등 제

현(諸賢)을 죽일것을 모의하고 경빈박씨(敬嬪朴氏)와 몰래 통하여 그러지 않는 말을지어 흘려 궁중에 들어가게 하여 한 나라의 인심이 다 조광조(趙光祖)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또 거짓을 꾸며 나무잎에다 벌레를 울려 놓고 주초위왕(走肖爲王)의 네자를 쫓게하여 임금의 귀를 현혹시키니 十一月十五日에 이르러 당연하게 품정하여 참람한 공훈을 깎아 등급의 차이를 두었는데 이날 밤에 남곤·심정(南袞·沈貞)등이 신무문(神武門)을 따라 몰래 들어와 조광조(趙光祖)등이 불궤(不軌:역적모의)를 도모한다고 상소하며 사태가 매우 급박하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정죄(正罪)케 하라고 청하니 삼경(三更:밤중)에 붉은옷을 입은 기병이 사방에서 나와 조광조·김 정(趙光祖·金 淨)등 여덟사람을 체포하여 장차 죽이려 함에 영상정광필(領相鄭公光弼)이 옷자락을 끌며 울면서 간하고 부군(府君)이 바로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지극히 간하길, 광조(光祖)등은 요순(堯舜)때 고기(皐夔) 직계(稷契)같은 사람이니, 원컨데 주상(主上:임금)께서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하고 또 병조판서 이장곤(兵曹判書 李長坤)을 부르고 이르길 꼬리를 흔드는 여우나 쥐같은 무리 속에서 같이 충성스러운 어진이를 해치느냐 하고 온갖 말을 다하여 간절하게 꾸짖고、드디어 종실(宗室)을 거느리고 상소문을 지어 올리며、정암(靜菴)등 제현(諸賢)을 구하여 원한을 풀으려하니 말이 매우 격절하고 슬기는 바가 없었는데 정원(政院)에서 가로막아 올려지지 못하고 간당(奸黨)들의 독을 먹음이 극에 달하였다。

정암(靜菴)은 사형이 감형되어 능주(綾州)로 귀양가고 부군(府君)은 해남(海南)으로 귀양갔다。이빈(李薲)이 대사간(大司諫)이 되고 이항(李沆)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합동으로 상소하여 광조(光祖)에게 형률(刑律)을 더 할것을 청하고 아울러 부군(府君) 및 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과 안당 김안국·이약빙(安瑭 金安國·李若氷)등 三十九人을 한 종이에 써서

아뢰니 정암(靜菴)에겐 주검을 주는 명이 내렸고、부군(府君) 및 시산정(詩山正)등 十四人은 다 관작(官爵)을 삭탈 당했다。정암(靜菴)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아우 서원령(西原令) 순(珣)을 보내 제문을 지어 제사하며 말하길 인간 세상에 눈을 들어 보아도 그림자도 돌아볼 짝이 없다고 하였다。신사(辛巳:一五二一)年 겨울에 송사연(宋祀連)이 무고하길 안처겸(安處謙)과 파릉군경(巴陵君璥) 및 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이 남곤(南袞)등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다고 하여 안처겸(安處謙)과 시산정(詩山正) 제공(諸公)을 죽이려고 얽어매고 또 의정(議定)의 무리들이 부군(府君)에게 형을 내려 드디어 금고의 화를 입게되니 대개 해남(海南)은 큰 바닷가에 있어 독기를 낀 안개가 하늘을 가려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이가 없는데、귀양살이 온 사람은 더욱 심했으나、부군(府君)은 처신(處身)할 여유가 있어 얼굴이나 수염등이 오히려 예날 보다 더 좋았다。

무술(戊戌:一五三八)年에 성균관(成均館)에서 공부하는 선비 이중남(李仲南)등이 상소하여 당인(黨人)들을 수용하길 청하니、임금이 들어 주시고 이에 김안국(金安國)、류인숙(柳仁淑)등을 관작을 주어 쓰니、부군(府君)과 안정(安挺) 신 잠·윤광령(申 潛·尹光齡)이 다 복직되고 석방되었다。부군(府君)이 해남(海南)으로부터 돌아와 곡성(谷城)의 통명산(通明山) 아래 산저촌(山底村)에 이르러 그곳에 살았다。그때에 서원령(西原令)이 모시고 따라갔는데 여러번 서울 집으로 돌아가길 청했으나 부군(府君)께서 웃으시며 말씀 하길、그대도 또한 산수(山水)의 경치에 취한 즐거움을 알것이다。담으로 둘러있는 고요한 집안에서 쑥을 캐서 국을 끓여 조석의 공양을 삼으니 명산(明山)의 쑥맛은 달고 즐기지 않아 사람들이 자못 기이하게 여긴다。

명종경술(明宗庚戌:一五五〇)年十月七日에 죽으니 수(壽)는 六十三이다。부음(訃音)이 들

리니 임금으로부터 은혜로운 부의가 있었다。배(配)는 현부인나주오씨(縣夫人羅州吳氏)인데 증나원군세훈(贈羅原君世勳)의 딸로 부덕(婦德)이 훌륭하게 갖추었다。묘(墓)는 부군(府君)의 묘소(墓所) 곁에 썼다。일남(一男)이 있으니 이름은 작(碏)인데 학행(學行)으로 감역(監役)에 천거되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손자(孫子)의 장손(長孫)은 용(鎔)이요、차손(次孫)은 흠(欽)이요、계손(季孫)은 옥(鈺)인데 어모장군 부사직(禦侮將軍 副司直)이다。장손(長孫)의 아들은 하나인데 이름은 유신(庾信)으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다 합격했고 가운데 손자(孫子)의 아들은 둘로 창발(昌發)과 명발(命發)인데 다 일찍 죽었으며 셋째 손자(孫子)의 아들은 셋인데 경신(景信)、유신(惟信)은 곧 불초(不肖)요、지신(止信)은 현감(縣監)이다。아~ 슬프다 부군(府君)이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 강직한 기운을 타고나 새로움을 밝히는 학문을 연구하고 조정암(趙靜菴) 제현(諸賢)으로 더불어 뜻을 한가지로 하고、도가 합하여져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정(正)을 붙잡고 사(邪)를 배척하다가 드디어 귀양길로 쫓김을 만났어도 원망하거나 후회한 바 없었다。귀양살이 十九年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환하게 밝은 마음 갈고、도(道)를 지키고 학문(學問)에 힘쓰는 공은 곤욕스럽고 궁한것으로써 조금도 사이를 두지 않았다。겁기야 그 돌아오라는 은혜를 무릅쓰고도 오직 징계하고 삼가할 일이 있어 서울 집으로 가지 않고、깊숙한 산속 절벽사이로 흐르는 물가에서 서식하다가 죽으니 요(堯) 임금 시대의 일민으로 후손에게 편안한 꾀를 물려준다는 것과 같은 것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부군(府君)의 아름다운 말씀、떳떳한 행실은 세상에서 스스로 공론으로 칭송함이 있어 집안에 전해지고 있으나 자못 흩어지고 잃어 버린것이 많아 불초(不肖)가 더욱 오래되면 더욱 없어질까 두려워하여 삼가 낳고 죽은 대강을 기록하여 비석에 새겨 후인(後人)들에게 상고케 하노라。

曾孫 承旨 惟信 謹書

正義大夫巴陵君李先生神道碑銘 幷序

工判漢陽趙鍾弼

國朝人物莫盛於　中廟之際我先子靜菴先生以格致誠正之學行修齊治平之道治教蔚然仔見東方初有之盛而北門夜開禍起不測蜮射蠆螫無所不至時則群賢之協贊　王猷與我先子彙征者駢首喪氣後先殛竄世耶稱己卯諸賢而宗室之巴陵君德巖先生卽其一也嗚呼君子之進而志存君民共成治效無世無之而未有如己卯之隆也小人之肆而戕害忠良毒痛士林無世無之而亦未有若己卯之慘也方己卯禍作之日廟堂而牽裾泣諫有鄭文翼公宗室而倡率抗章有巴陵君雖終不救同及於禍然百世之下聞其風而想像其爲人豈可不凜然起敬哉先生諱璥字子振德巖其號也系出璿源我　太宗恭定大王第一子敬寧君諱裶爲別出之祖敬寧君於王子中年德最高授讓寧孝寧學又嘗爲　世宗師傅至　光廟朝以高年尊屬極被寵渥國有大事悉就咨焉　贈大匡

輔國三韓齊公謚齊簡是生諱穎福城君序居第七初授守　世祖朝受命問弊湖南耶至澄清　睿廟朝以功陞正封君　贈正義大夫是生諱金山金陵君明善大夫亦　贈正義配　贈縣夫人昌原黃氏縣監繼孫女以弘治元年戊申二月二十七日生先生卽我成宗大王十九年也先生生而天分絶異旣和且粹才氣超凡雖居貴游一意儉泊綺紈不近於身事親無違志生致其養喪致其哀祭致其誠親塋稍遠強一舍而每月朔望展省不以寒暑廢讀書必以經傳爲主而探索義理不明不措爲學必以聖賢爲準而踏着本實必誠必信與我先子及冲菴諸賢爲道義交講明正學卓然以挽回世道爲己任　中廟改玉鋭意文治我先子首被擢用其餘諸賢相繼登選布列朝廷先生亦參焉於是乎君子之道行而其治化者勵廉恥正風俗策賢良崇詩書正誼而明道貴王而黜霸成效日章庶幾乎三代之隆矣我先子嘗與諫院玉堂合啓請削靖國濫勳言甚

功直且文臣之侍經席錯綜經史指陳義理朝講或至日昃　聖體疲倦御床有時憂然作聲南袞沈貞以傾險得罪士林爲清議耶擯故内懷忮心而揣　上意厭儒臣而與洪景舟遂立凶圖潛通宮嬪成蠱篆於禁苑木葉急播飛語以惑上心至於十一月十五日當稟定削勳是夜袞貞等從神武門潛入啓趙光祖等謀不軌事機甚急請付有司正罪三更緹騎四出逮捕趙光祖金淨等八人將殺之領相鄭光弼蒼黃入闕反覆論啓言甚懇惻至於牽裾泣涕先生遂倡率宗親詣賓廳涕泣諫曰光祖等唐虞之皐夔願　主上無信讒言且字呼兵判李長坤曰希剛搖尾狐鼠中同害忠良乎極口切責復率宗室而搆進一疏伸救我先子及諸賢語甚激切無所隱諱政院沮格不捧而奸黨含毒極矣光弼又力諫其不然且舘學儒生數百人號哭闕門外聲徹大内乃命光祖減死竄綾州淨竄錦山璥竄海南及李蘋爲諫長李沆爲憲長合啓請加律光祖幷書先生及詩山

正正叔安瑭金安國李若冰等三十九人于一紙以啓於是我先子賜死之命下而先生及詩山正正叔以外十四人幷削官爵先生聞我先子受後命不勝痛盡遣弟西原令珣爲文以祭之辭旨悱惻辛巳冬宋祀連誣告安處謙與巴陵君璥及詩山正正叔謀殛衰貞等遂成大獄處謙正叔諸公皆被極刑又議定黨人律先生亦被禁錮戊戌館學儒生李仲南等上疏請收用黨人　上從之乃叙用金安國柳仁淑等先生及安挺申潛尹光齡皆復職放釋盖海南濱海之鄉也瘴烟漫天易成疾病而遷徙者轉甚先生若安舊土顔貌髭髮復勝昔時庸詎非定力有素也耶釋命下還至谷城之通明山下止不復北西原令屢請還洛第先生笑曰君知山居之樂乎憤無以世外事聞於我也木食澗飲嘯歌一室竟以　明廟庚戌十月十七日考終壽六十三訃聞自　上特賜恩賻葬通明山北牛谷面沙器村案山面子之原配縣夫人羅州吳氏　贈羅原君世勳其考也克守

閫範有女士行墓先生墓下同原有一男碏學行薦　除繕工監假監役孫男長鎔次欽季鈺禦侮將軍副司直鎔生廋信生進俱中欽生昌發命發皆早卒鈺生景信隱德不仕惟信生員文科承旨止信縣監曾玄以下寔繁而昌以文行相尚嗚呼聖賢之道蘊之則爲德行行之則爲事業耳士生一世豈不欲展其所蘊而施諸事爲以成一時之治哉顧時之不可故卷而藏之草野之中終於獨善其身而已矣使一遇其時而行其耶學則亦不曰天之耶使之以擬其任者耶且夫得其君難矣得其類又雜矣得君在上而下無同氣之求以相與共貞焉則亦廢而已矣是故自古聖賢欲行其道至於捼捼遑遑而終不能焉者皆以不遇也遇明主遇同類之彙征由是而少展其平生之志豈非曠百世而難遇者耶嗚呼　中廟己卯之世卽我東上下數千年間一遇之會也以　中廟爲君矣以我先子爲臣矣以冲庵以外諸賢爲同類矣政化之發於平日所蘊者日新月革虞

夏商周之隆可庶幾焉則士生此世詎非幸歟但進退消長互換其機行未中途處嬰奇禍遂爲千古之恨然兆足以行矣則優爲之而遺風餘化尚被於後人亦不可謂全不幸也先賢有言曰世以己卯爲我朝文明之盛當時坐黨謫者其之才之德不言而可知也先生非但黨謫而已其所抗章極諫於當日祖欲壞小人之凶圖救賢類之不淑而諤諤不捨則先生學問論議可爲後世法者人孰敢間焉哉先生后孫鍾權久永輔根千里來訪求先生阡刻於不佞不佞雖不能文其於先生之役顧何辭以辭諸遂爲之銘銘曰

中廟之世靜爺當路維時群賢相尚以道志同氣合堯舜君民治化隆洽逐日以新正誼明道不計其功尊王黜霸如日正中東方千載文明之會萬口一聲莫盛己卯於維先生生丁此辰所志大願學聖人天潢邇班　不近綺穀與同寒士蕭然一室朝暮咿唔講書不輟學優從政志功憂國寤寐唐虞曷不古若至治之世亦云今日羌中

途方群宵化蜮神武夜開變生不測蟲篆忽作鬼泣神驚盈庭賢俊
駢首受刑先生曰咨是可忍哉抗章極言君心庶回事機一乖天日
冥漠悲結中腸漣漣涕泣禍不中斷讒人罔極君子者人鋒寧付觸
先生被逐亦遵海濱廾載瘴烟顔髮不塵昔竄今宥止不復北永矢
邁軸通明之麓我岡我陵我湖空明于以居之聊樂我生先生之風
山高水長我思古人揭此銘章

正義大夫巴陵君李先生 神道碑銘 幷序(정의대부파릉군이선생 신도비명 병서)

우리나라 이믈(人物)은 중종(中宗)때 처럼 성한적이 없었는데、내 조부(祖父) 정암선생(靜菴先生)이 격치성정(格致誠正)의 학행(學行)과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도(道)로써 다스리고 가르침이 유연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훌륭한 일로 나타났는데、북문(北門)이 밤에 열려 화(禍)가 일어날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나、물여우가 독기를 쏘고 전갈이 독침을 쏘듯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니 때는 여러 어진이들이 왕도(王道)를 도왔는데 내 조부(祖父)와 함께 때를 지어 조정에 들어갔던 뭇들이 나란히 기운을 상하여 앞뒤로 죽거나 귀양가니、세상에서 기묘제현(己卯諸賢)이라고 칭하는데 종실(宗室)의 파릉군 덕암이선생(巴陵君 德巖李先生)도 곧 그 한사람이다。아~ 군자(君子)가 조정에 나아가 뜻을 군민(君民)에 두고 함께 다스리는 효과를 이루는 것은 대대로 없지 않으나、기묘(己

卯)의 융성한 때 같음은 없었고、소인이 방자하여 충신과 어진이를 죽이거나 해치고 사림(士林)에게 독을주고 슬프게 한것은 대대로 없지 않았으나、기묘(己卯)의 처참함 같음은 없었다。바야흐로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던 날에 묘당(廟堂)에서 옷자락을 끌며 울고 간한이는 정문익공(鄭文翼公)이 있었고、종실(宗室)에서 많은 사람을 이솔하고 항거한이는 파릉공(巴陵公)이 있었다。비록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같이 화(禍)를 당했으나 그러나 백세(百世)의 아래에서 그 풍성을 듣고 그 사람됨을 상상할때 어찌 가히 공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랴。선생(先生)의 휘(諱)는 경(璥)이요、자(字)는 자진(子振)이며 덕암(德巖)은 그 별호다。계통이 선원(璿源:왕통(王統))에서 나오니 우리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의 제일자(第一子)인 경녕군휘비(敬寧君諱裨)는 별출(別出)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왕자중(王子中)에서 나이가 가장 높아 양령대군(讓寧大君)과 효령대군(孝寧大君)을 가르쳤고、또 일찍 세종(世宗)의 사부(師傅)가 되었다。전(傳)해 내려와 세조조(世祖朝)때 높은 나이와 존속(尊屬)으로 총애의 은혜를 입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다 자문을 받고 대광보국삼한제공(大匡輔國三韓齊公) 시호(諡號) 제간(齊簡)에 증(贈)되다。이분이 휘영복성군(諱穎福城君)을 낳으니 일곱번째 아들이다。처음으로 수(守)를 주어 세조조(世祖朝)때 호남(湖南)의 폐단을 알아보라는 명을 받고 이르는 곳마다 맑고 깨끗하여 예종조(睿宗朝)에 공(功)으로 정(正)에 오르고 군(君)으로 봉(封)되어 정의대부(正義大夫)에 증(贈)되다。이분이 휘금산(諱金山)을 낳으니 금릉군 명선대부(金陵君 明善大夫)였는데 정의대부(正義大夫)에 증(贈)되고 배(配)는 증현부인창원황씨(贈縣夫人昌原黃氏)로 현감계손녀(縣監繼孫女)이다。홍치원년(弘治元年:一四八八) 무신(戊申)二月二十七日에 선생(先生)이 출생(出生)하니 곧 우리 성종대왕(成宗大王)十九年이다。선생(先生)이 태어나서부터 천품(天品)이 뛰어나고 기이하고 화하고 맑아 재

기(才氣)가 범상에서 뛰어나 비록 귀(貴)하게 살지만 한결같이 검소한데 뜻을두워 비단옷을 몸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버이를 섬김에 뜻을 어김이 없었고 생존시엔 그 봉양을 다했고 죽어선 그 슬픔을 다했고 제사땐 그 정성을 다했다。 부모 묘소가 조금 멀어 삼십리(三十里)가 되었지만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하는 것을 춥고 더웁다고 폐하지 않았으며 글을 읽는 것은 반드시 경전(經典)을 주로 하여 의리를 탐색하여 확연하게 밝히지 않으면 놓지 않았다。 학문(學問)은 반드시 성현(聖賢)으로 기준을 삼고 근본의 실상을 밟아 부딛치고 정성으로 하고 신의로 하여 내 조부(祖父)와 충암(冲菴) 제현(諸賢)과 더불어 도의교(道義交)를 삼고 정학(正學)을 강명(講明)하여 탁연히 세도(世道)를 만회하는 것을 내 책임으로 삼았다。

중종(中宗)이 법제를 고치고자 문치(文治)에 뜻을 다단히 두고 내 조부(祖父)를 먼저 발탁하여 쓰니 그 나머지 제현(諸賢)들도 서로 이어서 뽑혀서 올라와 조정에 포열하니 선생(先生)도 또한 참여 하였다。 이제야 군자(君子)의 도(道)가 행해지고 그 치화(治化)에 나타난 것은 염치를 가다듬고 풍속을 바르게하고 현량(賢良)에게 직책을 주고 의리를 바르게 하고 도를 밝히며 왕(王)을 귀하에 여기고 패(覇)를 내치니 이루어지는 효과가 날로 팽창하여서 거의 삼대(三代)시절의 융성함이라。 내 조부(祖父)께서 일찍 간원(諫院)과 옥당(玉堂)으로 더불어 합계(合啓)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공훈(功勳)이 참람한 이를 깎자고 청할때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곧으며 또 문신(文臣)들이 왕을 모시고 경(經)을 읽는 자리에서 서로 엉크러진 경사(經史)를 그 의리를 지적하여 펴주고 아침에 강한것이 혹 해가 기울기에 이르니 왕의 몸이 피곤하여 임금님 책상에서 때로는 쇠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있었다。 남 곤(南袞)、심 정(沈貞)이 경험(傾險)으로 사림(士林)에게 죄(罪)를 얻어 청의(淸議)에서 내친바 되어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왕의뜻이 유신(儒臣)들을 싫어하는 것을 헤아려 홍경주(洪景舟)와

더불어 드디어 흉한 꾀를 세우고 몰래 궁빈(宮嬪)과 통하여 벌레가 금원(禁苑)의 나무잎을 쫓게하여 굽히 그러없는 말을 전파하여 왕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十一月十五日에 이르러 풍수를 정하여 공훈(功勳)을 삭감할 때를 당하여 이밤에 남 곤(南袞)、심 정(沈貞)등이 신무문(神武門)을 좇아 몰래 들어와 조광조(趙光祖) 등(等)이 불궤(不軌)를 도모하고 있다고 아뢰고 사태가 매우 심하니 유사(有司)에게 불여 재를 바로 하여야 한다고 청하니、밤중에 붉은 옷을 입은 기병이 사방에서 나와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 등(等) 八人을 체포하여 장차 죽이려하니 영의정(領議政) 정광필(鄭光弼)이 급하게 입궐하여 반복하여 아뢰니 말이 매우 간절하며 측은 하였고 옷자락을 끌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르고 선생(先生)은 드디어 종친(宗親)들을 이솔하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아뢰길 광조(光祖)등은 요순(堯舜)시대의 고기(皐夔)나 같으니 원컨데 주상(主上)께서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마시오 하고、또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장곤(李長坤)을 부르며 희강(希剛)은 꼬리를 흔드는 여우나 쥐속에서 충량(忠良)들을 같이 헤치느냐고 말을 다하여 꾸짖고 다시 종실(宗室)을 거느리고 상소문을 얽어 올려 내 조부(祖父) 및 제현(諸賢)을 구하니 말이 매우 격절하고 슬김이 없으니 정원에서 가로막아 봉납되지 못하였고 간사한 무리들의 독을 품음이 극에 달하였다。광필(光弼)이 또 힘을 써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하였고、또 성균관(成均館)에서 공부하는 유생(儒生) 수백명이 대궐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대내(大內:왕이 있는곳)에까지 들리니 이에 조광조(趙光祖)는 사형에서 감형하여 능주(綾州)로 귀양 보내고 김정(金淨)은 금산(錦山)으로 귀양 보내고 경(璥)은 해남(海南)으로 귀양 보냈는데 이빈(李薲)이 대사간(大司諫)이 되고 이항(李沆)이 대사헌(大司憲)이 됨에 미쳐 합계(合啓)하여 광조(光祖)에게 형벌을 더 청하면서 아울러 선생(先生)과 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과 안당 김

안국·이약빙(安瑭 金安國·李若氷)등 三十九人을 한 종이에 써서 아뢰니 이에 내 조부(祖父)를 죽이라는 명이 내렸고 선생(先生)과 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이하 十四名은 같이 관작(官爵)을 삭탈 당했다。 先生이 내 조부(祖父)께서 죽을 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우 서원령(西原令)을 보내어 제문(祭文)으로 제사지내니 말의 뜻이 나오지 않아 슬펐다。 신사(辛巳:一五二一)年 겨울에 송사연(宋祀連)이 무고하여 안처겸(安處謙)과 파릉군경(巴陵君璥) 및 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이 남 곤(南 袞)、심 정(沈 貞) 等을 죽이려는 모의를 한다고 하여 드디어 큰 옥사를 일으키니 처겸(處謙)과 정숙(正叔) 제공이 다 극형(極刑)을 입고 또 의정당인(議政黨人)들이 先生을 형벌하자고 하여 또한 금고를 당했다。 무술(戊戌:一五三八)年에 성균관(成均館) 유생 이중남(儒生 李仲南)등이 상소하여 당인(黨人)들을 수용(收用)하자고 청하니 왕이 들어주어 이에 김안국(金安國)、류인숙(柳仁淑)등을 차례로 쓰고 先生과 안정、신잠、윤광령(安挺、申潛、尹光齡)은 다 복직되고 석방 되었다。 대개 해남(海南)은 바다를 낀 고을이라 독기가 깔린 안개가 하늘에 만연하여 쉽게 질병에 걸리는데 귀양 온 사람에겐 돌기가 심했으나、선생(先生)은 편안하기가 옛집이나 같아 얼굴 모양이나 수염등 머리칼이 다시 옛날보다 좋으니 어찌 정해진 힘이 본래 있지 않다면 그렇게 되겠는가、석방의 명이 내리자 돌아오면서 곡성(谷城)의 통명산(通明山) 아래에 이르러 그치고 북으로 다시 가지 않으니 서원령(西原令)이 여러번 서울 집으로 돌아가길 청하니 先生이 웃으며 이르길 그대는 산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겠는가 참으로 세상밖의 일은 내게 들리지 않는다。 나무를 먹고 돌속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한 방에서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다가 마침내 명종경술(明宗庚戌:一五五〇)年十月十七日에 죽으니 수명(壽命)은 六十三이다。 부음(訃音)을 듣고 왕으로부터 특별(特別)히 은혜로운 부의가 주어지고 통명산(通明山) 北쪽 우곡면(牛谷

面:오곡면(梧谷面)) 사기촌(沙器村) 안산(案山) 자향(子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다。배(配)는 현부인나주오씨(縣夫人羅州吳氏)인데 증나원군 세훈(贈羅原君 世勳)은 그 아버지다。능히 규범을 지키고 여사(女士)의 행실(行實)이 있었다。묘(墓)는 선생묘(先生墓)아래 한벌안에 있다。일남(一男)을 두니 이름은 작(碏)인데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고 감역(監役)의 손남(孫男)에 장(長)은 용(鎔)이요、차(次)는 흠(欽)이요、계(季)는 옥(鈺)인데 어모장군 부사직(禦侮將軍 副司直)이요、용(鎔)은 유신(庾信)을 낳았는데 생원(生員)과 진사(進士)에 합격했고 흠(欽)은 창발(昌發)과 명발(命發)을 낳았는데 일찍 죽고 옥(鈺)이 낳은 경신(景信)은 덕을 숨겨 벼슬하지 않고 유신(惟信)은 생원(生員)과 문과(文科)로 승지(承旨)요、지신(止信)은 현감(縣監)이다。현손이하(玄孫以下)는 진실로 번성하고 창성하여 문행(文行)으로 서로 도운다。

아~ 성현(聖賢)의 도(道)란 쌓아 놓은즉 덕행이 되고 행하면 사업이 되는 것이다。선비가 한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그 쌓인것을 펴서 사업에 시행하여 한 때의 치정(治政)을 성취코자 하지 않겠는가。때를 돌아볼때 옳지 않은고로 초야의 속에 갈추어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하다가 죽을 따름이다。하여금 한번 그때를 만나 그 배운것을 행하면 또한 하늘이 부리고자 그 소임을 헤아려 준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또 대범 그 임금을 얻기가 어렵고 그 류를 얻는것은 또 어려운 것이다。얻은 임금이 위에 있으나 아래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구하여 서로 더불어 공정(共貞)함이 없다면 또한 폐할 따름이다。자고로 성현(聖賢)이 그 도(道)를 행하려다가 길들이려 허둥지둥 하는데 마침내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밝은 임금을 만나고 동류로 조정에 떼지어 나간 사람들을 만나면 이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 평생의 뜻을 펴는것이니 어찌 백세라도 드물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아~ 중종기묘(中宗己卯)의 세대는 곧 우리나라 상하(上下)로 수천년 사이에 한번 만남의 기회다。중종(中宗)을 임금으로 삼고 내 조부(祖父)를 신하로 삼아 충암이외(沖菴以外) 제현(諸賢)이 동류(同類)가 되었으니 정치가 화 하여져 평소 쌓인것을 피어내 날로 새롭고 달로 고쳐서 순임금이나 하(夏)나 상(商)이나 주(周)나라 때의 융성함이나 거의 같았은 즉 선비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것이 어찌 다행하다 않으랴。다만 나아가고 물러서며 녹고 자라는 것은 서로 그 기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가려다 중도에도 못가서 문득 기이한 화를 만나 천고(千古)의 한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징조는 족히 행하였은즉 넉넉하게 하여 유풍의 나머지가 오히려 뒷사람들에게 입혀질 것이니 또한 온전히 불행하다고 이르지 못할 것이다。선현(先賢)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기묘(己卯)로써 우리나라 문명의 융성시기라고 하였으니 당시에 당적(黨謫)에 앉은 분들의 재주와 덕은 말하지 않더라도 가히 알겠도다。先生은 다만 당적(黨謫)일 뿐만 아니라 당일에 상소로 항거하고 극하게 간한것은 기어이 소인들의 흉한 꾀를 무너뜨리고 어진이들의 주검을 구하고자 곧은 말을 놓지 않았은즉 先生의 학문(學問)과 논의(論議)가 가히 후세에 법 받을것이 될것이니 누가 감히 사이를 두랴。선생(先生)의 후손(后孫) 종권、구영、보근(鍾權、久永、輔根)이 천리(千里)길을 찾아와 선생(先生)의 비(碑)에 각(刻)할 글을 불녕(不佞:재주없는 사람)에게 구하니 불녕(不佞)이 비록 능히 글은 못하나 그 선생(先生)의 역사(役事)에 무슨말로 돌아보고 사양하리오。드디어 명(銘)을 하노니 명(銘)하길

중종(中宗)의 세대는 정암(靜菴) 할아버지가 조정에 있었고 그때엔 군현(群賢)들이 서로 도(道)로써 도왔네。뜻이 같고 도(道)가 합해져 요순군민(堯舜君民)이었다。다스리는 덕화는 융성하고 흡족하니 날을 좇아 새로워졌네。의리를 바로하고 도를 밝히며 그 공은 헤아리지 않았다。왕(王)을 존경하고 패(霸)를 내치니 해가 한 가운데 있는것 같네。우리나라 천년에 문

명의 모임은 만입이 한소리로 기묘(己卯)보다 성한적이 없다하네。우리 先生은 나서 북진(北辰)을 만나 뜻한바가 커서 성인을 배우길 원했도다。왕족의 양반이면서도 화려한 비단옷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더불어 찬 땅에서 같이하고 쓸쓸한 일실에서 살았네。아침 저녁으로 글을 읽고 글을 강하길 그치지 않았네。배움이 넉넉하여 조정을 좇아가 공(功)에 뜻하고 나라를 근심했다。자나깨나 요순이니 어찌 옛사람 같지 않으랴。이상적인 정치의 세상은 또한 금일이라 하겠다。중도에서 끊어짐이여 소인배들이 물여우가 되었네。신무문(神武門)이 밤에 열려 변이 생길줄 생각지도 못했네。벌레가 새겨 문득 글자를 만드니 귀신도 울고 신도 놀랐네。뜰에 가득한 어진 사람들 머리를 나란히 형을 받았다。선생(先生)이 탄식하니 이를 가히 참을손가。상소로 항거하고 말을 다하니 임금의 마음도 거의 돌아왔으나 일의 기틀이 한번 거스리니 하늘과 해가 어둡고 망막하도다。슬픔이 속 창자에 맺혀 눈물이 줄줄 흐르며 울기만 하네。화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참소하는 사람이 다하지 않아 군자라 하는 사람들이 봉녕(鋒寧)을 대지르지 않았으나 先生은 쫓겨나니 또한 바다 물가로 갔네。二十年의 독기찬 연기에도 얼굴과 수염은 변하지 않았네。예적엔 귀양가고 오늘은 용서되었으나 여기에 그쳐 다시 북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쉬기로 맹세하니 통명(通明)의 산록이로다。내 뫼와 내 능、내 호수는 환히 밝아 여기에서 사니 외오라지 내삶이 즐겁구나、先生의 풍치는 산같이 높고 물같이 길도다。내가 옛사람을 생각하여 이 명장(銘章)을 걸어 두노라。

工曹判書 趙鍾弼 謹撰

上疏

西溪 南 趎

義州罪人及第臣南趎誠恐頓首頓首謹言于 主上殿下伏以臣簡易乾坤二掛之象辭曰大哉乾元萬物資始至哉坤元萬物資生係之以象曰君子以自彊不息君子以厚德載物解卦之象辭曰天地解而雷雨作雷雨作而百果草木皆用坼解之時義大矣哉係之以象曰君子以赦過宥罪夫易之所謂君子者王者之通稱所謂以者法之之謂也然則王者不可不法乎天地以御世治民而尤不可不法乎解以導引和氣昔者堯舜之世法網疎濶雖以四凶之罪至於投竄然而當時百姓有昭明之美四方臻風動之化無一民一物不獲其所此亦王者法天地行仁政之一大驗也卽以虞史所書眚災肆赦罪疑猶輕等語觀之則蓋可見矣今 殿下以神聖英睿之資承天地神人之托勵精圖治發政施仁于今十二年慮閭閻之有隱則每遣使而詢之慮罪獄之有濫則每頒令而憫之一國民人莫不

熙皞自得於涵養煦乳之中雖虞舜好生之德周文如傷之仁何以加之而臣獨不肖陷于禍網未蒙　殿下天地之大德惡積罪厚萬苑何惜然忘己之不肖而咨嗟號哭於窮巷之外亦足以累　殿下至化之治夫言出乎心情著乎言臣爲情之所激觸不避斧鉞粗言其終始伏惟　聖慈矜察焉臣全羅道谷城人也家居甚窮臣髫孩時臣之父母教以詩書常謂臣曰夫貧家之子不學未免負羽從軍奔走於車塵馬足之間今汝爲獨男若不勤學以立身揚名則不知我輩終誰之托臣聞其言遂痛自奮刻於古書無所不讀臣年十五而中丁而秋進士試卄二而登甲戌秋別試於是臣之父母喜其有賴養而臣之計亦爲如此庶足以恢父母待哺之望不幸去年夏爲人所陷遂就告訴守令之獄臣之計虛矣父母之望孤矣臣之事狀已具於前疏不必重複喋喋於　殿下而後明也始也臣情雖有可議而臣之罪已畢條定無由自明則將殞絶於箠楚之下幸賴　殿下天日之鑑初

降贖杖之恩使臣骸骨既已獲全於萬苑之中又減黜鄉之律使臣晻曖之跡猶得白日於一世之上　聖恩如天顧臣之力無地可報但臣之所以日夜腐心於此欲忘而不可忘欲已而不可已者有三焉臣爲獨于於人子事父母之道尤爲無所不至而布衣時有志杓切業把編來遊一不親自採釣而養之及捷科第之後又不能登名仕版以榮之一朝反罹奇禍決別萬里夫子之於父母窮不能養達不能榮古今天下如臣之化有幾人耶非徒不能榮養臣之父母年皆六十有餘而母本夙嬰疾病積有年歲平居常伏枕席一歲不一洗一月不一起每糜粥一日飲一匙以爲命疲澤枯渴語言訛凝或至昨日所爲今日不知氣息綿綿日益以急臣每入見雖不敢斥言其危出則必痛哭不自已及與臣別也扶病呼痛哭之以行則瞑目搖頭無一言以對但以兩手揑攫其胷臣不忍正視遂掩面決棄以趨出焉則到此以後音聞杳杳雖不認生苑然幸而綿延至今臣知其必傷

心重病以至於不遠也何以言之以人情論之人子慕父母之誠雖切而不及於父母慕子之心愈切嚴父愛子之心雖深而不及於慈母愛子之情愈深且丈夫之性異於婦女少者之憂異於老者臣之慕父母之心不及於父母之慕臣忽有憂愁之來付之以命強寬志氣而其年齡又未衰猶且仍此得病不能飲食遂至心神日憒肢體日解尚恐其不能扶持也則臣母之於臣愛之之心愈深且切加以老病之極晝夜憂思涕泣不食親戚家人雖百端寬諭婦女性執不肯聽從一朝氣殫心虛邪氣纏撼則其能保其康強耶夫父母之於子子之於父母皆天性也父母有疾雖日侍左右人子之心猶怛怛然不自安況爲獨子目睹其危苦之狀濶別數千里外哉一周而音耗不聞父母則已矣不知人子當何以爲心哉是故古先帝王之治天下國家也莫不崇重孝理或有免獨子從軍俾歸養其父母者此固仁政之大端也我朝祖宗崇孝之道亦迢出百王以至存留養親

之月著諸令甲雖犯大罪猶從末減臣獨未蒙此臣之所以日夜爲病母腐心欲忘而不可忘欲已而不可已者也臣在家素感風痺二載幾不能全幸爲父母妻子之衛養賴以爲生今飲食不調醫藥不繼臥床呻吟孰爲問故抱膝愁泣孰爲解慰加以風土異性寒暑異序瘴癘之氣常滯籬落物象之恠屢駭視聽且境接豺虎俗尚彊捍但知操弓矢挾甲冑以與人抗而不知禮義小不如意輒張絃抽刀報之然後已甚者至乞醬不與盃酒不分遂成猜讎焚蕩人家室一歲之間不知幾許又善蠱呪之術以毒人輒傷臣以孤危之跡介於其間目矚其事耳聆其風每蒼黃恇惴憂慮煎鬱食不下咽寢不得瞑也不徒此也臣之新爲氓于此適屬歲凶臣之於此處無父母之遺田可以耕墾無妻孥之供助可以力農臣又不能手自耕耘固已無秋之望矣而臣乞貸於人月得一斗日得一升以爲生計自歲旱不雨穀不登之後臣不敢復乞於人人不能復貸於臣臣既不能通販以食

其嬴餘官倉之粟又竭於賑救不能貸出以偷姑息之活疲病萎薾之腸又不能充黎藿以爲命臣計無所出所服之衣賣之已盡衣已盡矣無復可賣則臣不出今秋將爲餓死之鬼矣臣雖無才能韋布讀書時每以事業自期謂父母妻子可以由吾使免飢餓豈知登第之後臣之身先父母妻子以至於餓死哉此臣之所以日夜爲一身腐心欲忘而不可忘欲已而不可已者臣觀關西一路北連朔鞨西界上國有事則此路先必受弊誠國家之藩籬也藩籬一弱使外寇得以窺伺垣墻之內則其禍必至於不測臣請言其大略此路自去歲不稔以來饑饉荐臻道殣相望臣來此時於道路見氷免之人持斧斲氷以掘蒲根以食者盈滿溝澤賑恤使雖勤於巡檢然一人之身耳目有限一路之境土廣人多巡西隅則棄東隅巡東隅則棄西隅守令雖勤於奉承然簿書倥傯之餘窮庄深谷不能每自檢省則境內雖有餓死而里正監考畏其罪不以實告累月之賑官倉之粟或至

於不贍臣未見其能使不餓也其時臣之計以爲民力既困而國力既竭雖有大有之慶其勢不可易賑不料又自今春以來連夏不雨百物憔悴牟麥不穗而無實禾黍有苗而無葉生靈之氣尤爲索然無田舍生產者皆抱負提携散之四方有田舍生產者不忍棄去群聚呼嗟白日怨哭之聲達諸四野或至把釜鼎抱衣服求所以易粟而終日不得一升死亡之禍期在朝夕民之窮困莫斯時若也以此無賴之徒群起爲盜林藪塢落之間嘯聚日繁燒人廬屋掠人牛馬甚至白日爭斗粟殺人於塗民心駭惶不遑居處今日有人告以某村某家有盜殺人搜捕之軍未發而明日又有人告以某衬某家有盜殺人矣告盜之人踵武相接於城邑不得已以州縣之吏分軍張捕東逐西搜日縛數十人致于官庭問其居處則某村農夫也問其情狀則迫於飢寒也聽其言觀其狀其情可哀也然指以爲盜痛加箠楚骨碎腦流血肉潰盡一日之間曳屍狼藉臭穢之氣騰滿户屋見

之可謂寒心夫一州一縣所見如此則其餘可擧而知也彼盜賊雖有罪亦　殿下之赤子也一爲飢寒所迫而至于此極雖刑獄日於飢寒不止則盜又不止以有限之民半歸於飢死半歸於盜死過今年至冬月則餓盜之起甚於今日關西之民幾乎盡矣長江氷合倘野人伺隙長驅而入則臣不知　殿下誰與守此西北事未兆而形已著此臣之所以日夜爲國家腐心欲忘而不可忘欲已而不可已者也凡此三者皆臣之痛憫者而先言病母之事次言臣身之事次言民禍之事臣非先父母吾身而後國家也次以罪人疏自已之事又付之以國家之事臣非沽名敢言以取顧藉於　殿下也所以言有序而不可紊情有屬而不可止者請言其所以然臣聞東海孝婦抱殺姑之怨三年大旱至於封墓致祭而後雨先儒有言曰一女仳離足以有水旱之灾冥冥之理雖不敢信其必然而臣之計切以爲果如前史所載先儒所言則臣母子隔離之怨豈止殺姑仳離之怨乎

此謂天灾民禍適値于今日臣竊疑今日之灾由於臣之母子而又疑臣之母子之冤足以有此灾禍也所以重複言之不知止也今臣之母子母病於南子餓於北各天一所抱冤終身則臣恐天灾民禍不止於此矣夫一女一夫之　甚微而有關於國家生民者甚大伏願殿下悶臣之病母哀臣之爲獨子矜臣之將餓死于以體天地　德于以渙雷雨之恩使臣母子得一相見於未死之前也若然則不徒臣母子之幸中和之氣遍滿宇宙天地自以位萬物自以育矣且一國生民父子之生養死葬於　殿下孝理率化之中亦未必不自此始也伏願　聖慈少寬鈇鉞之誅臣無任萬死屛營之至謹拜手稽首以聞

西溪　南　趎(서계 남주)

上疏(상소)

의주죄인(義州罪人) 급제신(及第臣) 남주(南趎)는 정성드려 두려워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주상전하(主上殿下)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엎드려 헤아리건데、신(臣)은 간이건곤(簡易乾坤) 이괘(二掛)의 상사(象辭)에 이르길、크도다 건원(乾元)은 만

물(萬物)이 자시(資始)하고 지극하다。곤원(坤元)은 만물의 바탕이 태어나고 이어져 상(象)에 이르길 군자(君子)는 스스로 힘써 최선을 다하며 쉬지않고 군자(君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시른다 하였고、괘를 푸는 단사(彖辭)에 이르길 천지(天地)가 풀어져 우뢰와 비를 만들고 우뢰와 비가 만들어져 백과(百果)와 초목(草木)이 다 싹이 터지니 풀어지는 때의 의의가 큰 것인저 이어서 상(象)에 이르길 군자(君子)는 허물을 사면하고 재를 용서하는데 대개 주역의 이른바 군자(君子)라 하는 자(者)는 왕자(王者)의 통칭이니 이른바 이자(以者)는 법대로 한다는 것을 이름이라、그런즉 왕자(王者)는 가히 법대로 하지 아니하지 않을 것인가。천지(天地)가 세상을 어거하는 것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면 더욱 가히 법대로 하지 아니치 못할 것인가。풀어서 써 화기(和氣)에 인도함이라。옛날 요순의 세상에는 법망이 서끌고 넓어 비록 사흉(四凶)의 재로도 귀양길에 던져지는데 이르렀으나 그러나 당시의 백성은 밝고 밝은 아름다움이 있었고 사방(四方)에 풍성이 움직이는 화(化)가 이르러 일민、일물(一民、一物)도 그곳을 얻지 않음이 없으니 이 또한 왕자(王者)가 천지(天地)를 법으로 다스리고 인정(仁政)을 행하는 하나의 큰 효험이다。곧 순임금 역사에 쓰여 있는것은 잘못으로 생긴 재앙은 놓아 사면하고 죄(罪)가 의심나면 오히려 가볍게 하라는 등(等)의 말을 본다면 대개 가히 볼것이로다。이제 전하(殿下)께서는 신성(神聖)하고 영예(英睿)한 자질로 천지신인(天地神人)의 의탁을 이어 다스리는 꾀를 가다듬어 정밀하게 하고 정치(政治)를 발하여 인(仁)을 베푼지 이제까지 十二年에 여염집에 넣음이 있다고 생각되면 매양 사신을 보내어 순방하여 상의케 하고 재인을 가두는 감옥에 넣음이 있다고 생각되면 매양 영(令)을 반포하여 민망히 여기니 일국의 백성이 기뻐하고 밝지 않은자 없어 스스로 따뜻한 것으로 함양하는 가운데 얻을 것이다。비록 우(虞)나라 순(舜)임금이 살리길 좋아하는 덕이 있고、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상

(傷)한 것같이 하는 어진이 이지만 어찌 더한다 하리오。신(臣)은 홀로 불초(不肖)하여 화망(禍網)에 빠져 전하(殿下) 천지(天地)의 큰덕을 무릅쓰지 못하고 악은 쌓여지고 재는 두터워져 만번 죽어도 무엇이 애석하리오만은 그러나 나의 불초(不肖)를 잊고 단식하고 슬퍼하며 시골 밖에서 부르짖으며 울더라도 또한 족히 전하(殿下)의 이상적인 다스림을 더럽혔습니다。대범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정은 말에서 나타납니다。신(臣)은 정을 위하는 곳이 격열하게 행해져도 형장을 피하지 않고 대강 그 끝과 처음을 말씀 하였나이다。엎드려 생각컨데 성주(聖主)께선 자애스럽게 살피소서。

신(臣)은 전라도 곡성(全羅道 谷城) 사람입니다。집안이 매우 궁하게 살았습니다。신(臣)은 머리따고 다니는 어렸을때 신(臣)의 부모(父母)가 시서(詩書)로써 가르치며 항상 신(臣)에게 이르길 가난한 집의 자식이 배우지 않으면 깃을 짊어지고 군대를 따라 수래의 먼지 말바굽 사이에서 분주 할 것이니 이제 너는 독신으로 만일 부지런히 배워 입신양명을 못한다면 우리들이 마침내 누구에게 의탁할지 알지 못할 일이다。

신(臣)이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통절하게 스스로 고서(古書)에 분발하여 각(刻)하고 읽지 않는것이 없었습니다。신(臣)이 나이 十五세에 진사시험(進士試驗)에 합격하고 二十二세에 갑술추(甲戌秋) 별시(別試)에 합격하니 이에 신(臣)의 부모(父母)는 봉양해줄 믿을곳이 있다 하여 기뻐하였고、신(臣)의 계획도 또한 이와 같았으며 거의 족히 부모가 먹여주길 기다리는 희망을 넓힐 것이었으나 불행하게 지난해 여름에 남의 모함한바 되어 드디어 고소를 당하여 수령의 감옥에 나아가게 되니 신(臣)의 계획은 허망하게 되고 부모의 바램도 외롭게 되었습니다。신(臣)의 사정(事情)은 이미 전에 올린 상소에 갖추워졌으므로 반드시 중복할 것은 없으나 전하(殿下)에게 말씀드린 뒤에야 밝혀짐이 시작될 것입니다。신(臣)의 정은 비록

가히 의논할 것이 있으나 신(臣) 재는 이미 끝났습니다。조목을 정할 이유가 없음이 스스로 밝혀진다면 장차 장형(杖刑)의 아래에서 죽을지라도 다행하게 전하(殿下)께서 하늘과 해의 보살핌으로 장형(杖刑)을 속받치는 은혜가 내려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臣)의 해골(骸骨)로 하여금 이미 만번 죽는 속에서 온전히 걷우어지게 하고 또 고을에서 내쫓는 형에서 감형하여 준다면 신(臣)은 캄캄하게 어두운 자취가 오히려 밝은 햇빛을 한 세상의 위에서 얻을 것입니다。성은(聖恩)이 하늘같아 신(臣)의 힘을 돌아보건데 가히 갚을 땅이 없습니다만 다만 신(臣)이 밤낮으로 마음을 이에 썩히고 있는 까닭은 잊고자 하나 잊지 못하고 말고자 하나 마지 못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신(臣)은 독자가 되어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를 섬기는 도(道)가 더욱 이르지 않을곳이 없어 벼슬하지 않을때에 뜻을 벼슬에 두고 책쥐고 공부하면서 한번도 친히 나물캐고 고기잡아 봉양하지 못하였고、과거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또 능히 이름있는 벼슬자리에 올라 영화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도리어 기이한 화(禍)를 당하여 만리나 결별되어 있으니 자식이 부모에게 궁하여 능히 봉양 못하고 영달하여 능히 영화를 보이지 못하였으니 고금천하에 신(臣)같은 사람을 견주어 볼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한갖 능히 영화스럽고 봉양하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신(臣)의 부모(父母)가 다 나이가 六十여세가 되고 어머님은 본래 일찍부터 병을 얻은지 여러 해가 되어 평상시에도 이부자리에 누워서 지내고 一年동안 한번도 세수도 하지 못하며 한달이 되어도 한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매양 미음과 죽을 하루에 한 수저씩 들며 목숨을 이어가니 피폐한 몸이 마르고 말씨가 어두해지며 혹은 어제 한 일을 오늘 알지 못하고 기식(氣息)이 실날같이 이어오며 날로 더 곱해 집니다。신(臣)이 매양 들어가 보면 비록 감히 그 위태로움은 말하지 못하나 나 나오면 반드시 통곡하길 마지 않는데 신(臣)과 더불어 결별함에 있어서 병을 붙들고 아픔

을 호소함에 울면서 간혹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한 말도 대답이 없고 다만 두손으로 그 가슴을 움켜 쥘 뿐이었습니다。신(臣)이 차마 바로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며 결별하고 달려 나왔은즉 여기에 온 뒤에는 소리 듣는것이 아득하여 비록 생사(生死)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다행히도 목숨을 이어 지금에 이르렀다 합니다。

신(臣)은 반드시 상심으로 중병이 멀지않아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무엇으로 인정(人情)을 말하며 인자(人子)를 논하리오。부모(父母)를 사모하는 정성이 비록 간절하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기리는 마음이 더 간절한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엄부(嚴父)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록 깊다 해도 자모(慈母)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이 더 깊음엔 미치지 못합니다。또 장부(丈夫)의 성질은 부녀(婦女)에게 다르고 젊은이의 근심은 늙은이의 근심과 다릅니다。신(臣)이 부모(父母)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모(父母)가 기리는 것엔 미치지 못합니다。신(臣)이 문득 우수에 찬 일이 불임이 있어 억지로 지기를 너그럽게 하라고 명하고 그 연령이 또 쇠잔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능히 먹고 마시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이 날로 산만해지고 사지와 몸이 날로 풀어져 오히려 능히 부지하지 못할까 두려워 하고 있으니 신(臣)의 어머님께서 신(臣)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고 간절하여 노병에 극함을 더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먹지도 못한다면 친척이나 집사람이 비록 백단으로 너그러히 설유한다 해도 부녀자(婦女子)의 성정의 고집이란 듣고 따름을 즐기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기운이 다하고 마음이 허해져 사특한 기운이 얽어 흔들면 능히 그 강녕을 보존할 것입니까。부모(父母)가 자식에게 하는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것은 다 천성이라 부모가 병이 있으면 비록 날마다 좌우에서 모셔도 사람 자식의 마음엔 오히려 노심초사하여 스스로 편안치 못한데 하물며 독자가 되어 눈으로 그 위태롭게 괴로워 하는 형상을 보고 수천리 밖

에 떨어져 있음이야 일주(一周)가 되도록 소식이 부모에게 들리지 않는즉 말것입니다。사람의 자식으로 마땅히 무엇으로 마음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옛날 제왕(帝王)들이 천하(天下) 국가(國家)를 다스림에 효도하는 이치를 높여 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혹(或) 독자를 면하는자 있으면 군에 가더라도 돌아가 부모를 봉양케하니 이는 진실로 인정(仁政)의 대단(大端)이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조종숭효(祖宗崇孝)의 도(道)가 또한 백왕(百王)에게서 멀리나와 양친(養親)의 달을 달력에 나타내는 제도를 조류케 하는데 이르렀으니 비록 범한것이 큰 재라도 오히려 감형하는 제도를 따랐는데 신(臣)만 홀로 이를 무릅쓰지 못했습니다。신(臣)이 밤낮으로 병든 어머니를 위하여 마음을 썩히는 까닭은 잊고자 하나 잊지 못하고 말고자 하나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신(臣)이 집에 있을때 본래 중풍으로 마비되는 병에 걸려 二年을 거의 온전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부모처자(父母妻子)가 간호하고 길러주워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음식도 고르지 않고 의약이 이어지지 않아 평상에 누워 신음하여도 누가 그 까닭을 물으며 무릅을 보듬고 슬피 울어도 누가 위안해 주는가、여기에 풍토가 다르고 차고 더운 절서가 다른것이 더하여 장기(瘴氣)로 걸린 병의 기운이 항상 울타리에 둘러있고 물형(物形)이 괴상하여 여러번 보고 들을때 마다 놀랬다。또 지경이 시랑이나 범과 접하여 의례히 활로 막았는지라 다만 활시울을 조종하고 감읏만 입고 사람과 대항할 줄만 알고 예의는 알지 못하며 조금만 뜻과 같지 않으면 문득 활을 당기고 칼을 뽑아 보복한 뒤에야 말며 심한 자는 장을 빌리려도 주지 않고 술 한잔도 나누지 않으며 드디어 시기하는 원수가 되고 남의 집을 불사르는 것이 一年사이에 몇번이나 그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또 저주하는 무술을 좋아하여 사람에게 독을 놓아 문득 상하게 합니다。

신(臣)이 외롭고 위험한 발자취로 그 사이에 끼어 눈으로 그 일을 부디쳐 보고 귀로 그 풍

속을 들으며 매양 파랗다 노랗다 겁에 질리고 근심걱정이 끊어올라 먹어도 목으로 내려가지 않고 잠을 자려도 눈이 감기지 않는데 한갖 이것만 아닙니다。신(臣)이 새로히 이곳에 사는 백성이 되었으나 마침 흉년을 만났는데 신(臣)은 이곳에 부모의 유전으로 갈거나 개간할 수 없고 처자의 도움으로 농사에 힘쓸 수도 없습니다。신(臣)은 또 손수 경운(耕耘)하지 못하니 진실로 가을을 거둘 희망이 없습니다。신(臣)이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사는데 한달에 한말을 얻고 하루에 한되를 얻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해가 가물어 비가 오지않아 곡식이 익지 않은 뒤로부터 신(臣)은 감히 다시 남에게 빌릴 수 없고 남도 다시 신(臣)에게 빌려주지 않으니 신(臣)은 이미 매매의 길을 통할 수 없어 그 나머지를 먹고 있으나 국고(國庫)의 곡식도 또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데 다 떨어져 능히 대출할 수 없어 우선 살아갈 방법을 흠치고 있으니 피곤한 병、오그라진 창자를 풀이나 콩깍지로 채워 살수 없습니다。신(臣)은 생산할 계획이 없고 입을만한 옷도 팔아서 이미 다 하였으니 옷도 이미 다 떨어져서 다시 팔것이 없은즉 신(臣)은 올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장차 굶어 죽는 귀신이 될 것입니다。신(臣)이 비록 재능이 없으나 배옷입고 글 읽을때 매양 사업으로써 스스로 기약하고 부모처자(父母妻子)가 가히 나로 말미암아 굶고 줄임을 면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벼슬길에 오른 뒤에 신(臣)의 몸이 부모처자(父母妻子) 앞에 아사하는데 이를줄이야 알았겠습니까。신(臣)이 밤낮으로 한 몸을 위하여 마음을 썩히는 까닭은 잊으려도 잊지 못하고 마려고 해도 마지못하는 것입니다。

신(臣)이 관서(關西)의 한길을 보건데 북쪽으로는 말갈(靺鞨)과 연해있고、西쪽으로 상국(上國：明나라)과 경계하고 있어 상국(上國)에 일이 있으면 이 길이 먼저 반드시 폐훼를 받을 것이니 진실로 국가의 울타리 이라 한번 약하여지면 왜구로 하여금 담장의 안을 엿보게 할 것이니 그 화(禍)는 반드시 측량하지 못할 곳에 이를 것입니다。신(臣)은 그 대략을 청하여

말씀 드립니다。이 길은 지난해 흉년이 든 이래로부터 굶주림이 거듭하여 길가에서 굶어 죽은 이를 서로 바라 봅니다。신(臣)이 이때에 도로에 나와 어름깨는 사람을 보았는데 도끼를 가지고 어름을 깨아서 풀 뿌리를 파서 먹는자 도랑이나 못에 가득하니 배고픈 자를 구휼하는 관리가 비록 부지런히 순찰하여 검색한다 하나 한 사람의 몸으로 귀와 눈이 한정이 있는것이라 한 길의 지경이 땅은 넓고 사람은 많아 서쪽 모퉁이를 돌면 동쪽 모퉁이를 버리고 동쪽 모퉁이를 돌면 서쪽 모퉁이를 버리게 되니 수령(守令)이 비록 위의 뜻을 받드는데 부지런하나 문서처리에 바쁜 나머지 궁한 전장과 길은 골을 언제나 스스로 숨겨하여 살필 수 없은즉 경내(境內)에서 비록 굶어죽은 사람이 있어도 이정(里正:이장(里長))이 감사에게 고하면 그 죄(罪)가 두려워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니 여러 달을 구휼할 국고의 곡식이 혹 넉넉지 못함에 이릅니다。신(臣)은 능히 굶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신(臣)의 계산은 백성의 힘이 이미 곤궁해지고 국력이 이미 다 되어 비록 풍년의 경사가 있더라도 그 형세는 바꾸지 못할 것인라。구휼을 요량치 못하겠고 또 올봄 이후로부터 여름까지 비가오지 않아 백가지 식물이 말라지고 보리 이삭이 나오지 않아 열매가 없고 벼나 지장이 묘(苗)는 있으나 잎이 없으니 생민의 기운이 더욱 막혀지고 농토의 생산이 없는자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린아이를 끌고 사방(四方)으로 흩어지고 농토의 생산이 있는자는 차마 버리고 가지 못하고 때로 모여 슬피 부르짖으니 백주에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혹 손을 쥐고 의복을 보듬고 곡식과 바꾸고자 하지만 종일토록 일승(一升)도 얻지 못하니 사망할 시기가 조석간에 있으므로 백성들의 곤궁한 것이 이때와 같은적이 없었습니다。이로써 식용이 없는 무리들이 때로 일어나 도적이 되어 우거진 숲과 마을 사이에서 불러모아 날마다 남의 집을 불지르고 남의 소와 말을 약탈하며 심지어는 백주에 곡식으로 싸우며 사람을 길에서 죽이니 민심이 놀래어 편안하게

거처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고하길 아무 마을 아무개 집에 도적이 들어 사람을 죽였는데 수색하여 체포할 군대가 발령되지 않고 명일에 또 어떤 사람이 고하길 아무마을 아무개 집에 도적이 들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도적을 고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 서로 성읍(城邑)에 접하고 있어 부득이 고을의 관리로 군대를 나누어 체포하려 동쪽으로 쫓고 서쪽으로 수색하여 날마다 수십인을 얽어와 관청의 마당에 맡기고 그 사는 곳을 물으면 아무마을 농부라 하고 그 정상을 물으면 굶고 추운데 곱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 모양을 보면 그정이 가히 슬픔니다。

그러나 도적으로 지목이 되면 앞으로 장형(杖刑)을 가하여 골수가 부서지고 혈육이 무너져 하루 사이에 시체가 낭자하여 더러운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니 보는 이들이 한심하다고 합니다。 일주(一州) 일현(一縣)에서 보이는 것이 이같은즉 그 나머지는 가히 들어서 알겠도다。 저 도적들이 비록 죄는 있으나 전하(殿下)의 자식들입니다。 한결같이 기한(飢寒)이 곱박하여 이런 극한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형벌로 다스리는 옥사(獄事)가 날마다 베풀어져도 기한(飢寒)이 그치지 않은즉 도적도 또 그치지 않아 한정이 있는 백성이 반은 굶어 죽는데 돌아가고 반은 도적에게 죽는데 돌아갈 것입니다。 금년(今年)을 지내고 겨울이 되면 굶주리는 자와 도적이 일어남이 오늘보다 심할 것이니 관서(關西)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고 긴 강이 얼음이 얼면 야인(野人)들이 틈을 엿보고 말을 몰고 들어오면 신(臣)은 모르겠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이 서북쪽을 지키겠습니까。 일이 조짐은 없으나 형체가 이미 나타났으니 이것이 신(臣)이 밤낮으로 국가(國家)를 위하여 부심하는 까닭이라 잊고자 하나 잊지 못하고 끝내려해도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 세가지는 다 신(臣)이 슬프게 민망히 여기는 것이라 먼저 병든 어머니의 일을 말하고 다음에 신(臣)의 신상(身上)에 대하여 말하고

다음으로 백성들의 화(禍)를 입는 일을 말했습니다。

신(臣)은 부모(父母)와 내몸을 먼저하고 국가를 뒤에 한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자기의 일을 호소하고 국가의 일을 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신(臣)이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감히 말씀드려 전하(殿下)에 아뢴것은 말이 차례가 있기 때문이요。정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부쳐서 그치지 않은것은 그 까닭을 청하여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신(臣)이 들으니 동해(東海)의 효부가 시어머니를 죽인 원한을 품고 삼년대한(三年大旱)에 무덤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두분 선유(先儒)께서 말씀하시길 한 계집이 헤어져 떠나도 족히 홍수와 큰 가뭄의 재앙이 있다하였는데 어둡고 어둔 이치를 감히 꼭 그러리라고 믿지 못할것이나 신(臣)의 계산으로는 과연 그러리라고 예전 역사에 선유(先儒)가 말한 것이 실려 있으니 신(臣)의 모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원한이 어찌 시어머니를 죽인 원한이나 헤어져 떨어져 있는 원한에 그치리요。이는 하늘의 재앙과 백성의 화가 마침 오늘날에 만난 것입니다。신(臣)이 가만히 의심컨데 오늘의 재앙은 신(臣)의 모자(母子)로 말미암음이요 또 의심컨데 신(臣)의 모자(母子)의 원한이 족히 이 재앙과 화를 있게 하였는가 합니다。중복하여 말한 까닭은 그만두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함이로다。이제 신(臣)의 모자(母子)가 어머니는 남쪽에서 병들고 자식은 북쪽에서 굶주리니 각각 다른곳에서 한결같이 원한을 보듬고 몸을 마친다면 신(臣)은 하늘의 재앙과 백성의 화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가 두렵습니다。한 계집 한 사나이의 원한이 아주 미미해도 국가와 백성에게 관계가 있는것은 매우 크니 엎드려 원컨데、전하(殿下)께서는 신(臣)의 병든 어머니를 어여삐 여기시고 신(臣)의 독자된 것을 슬퍼하시고 신(臣)의 장차 굶어죽을 것을 불쌍히 여겨 천지(天地)의 덕을 받고 천둥치고 비가 내리는 은혜를 푸시어 신(臣)의 모자(母子)로 하여금 한번 죽기전에 서로 만나보게 하여 주십시오。그렇게 하면 한갖 신(臣)의

모자(母子)의 다행일 뿐 아니라 중화(中和)의 기운이 우주에 두루 가득하여 천지(天地)가 스스로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스스로 길러질 것입니다。 또 일국(一國)의 생민(生民)과 부자(父子)가 살았을때 봉양함과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전하(殿下)의 효리(孝理)로 국민을 거느려 화하게 하는 中에도 또한 반드시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노니 성상(聖上)께서 조금만 도끼밑에 죽임을 관용해 주다면 신(臣)은 만번 죽어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삼가 절하오며 머리를 조아려 들리게 합니다。

燭影賦

茅茨日晏春興方悠悠幽攤古帙一部宋春秋其間燭影之傳疑筆痕分明其有證萬古江浪是非誰定以爲眞也則人情之所不忍爲以爲僞也則史氏之記錄昭垂欲斷未斷精神忽憊竟晷沈思一眠乍成風飄飄而吹余指泱漭而上征行到一處世界寬平邐迤其外白玉爲城岌嶪其內閶闔有門入累息而屛氣窺玉皇之嚴尊庭有二丈夫兮各抱牒而求訟視其容貌皆非常人而又郁其僕從一則自稱匡胤一則自稱匡義兩對相看如負深愧玉皇曰噫二趙天子

各控所懷以悉以披匡義再拜請先伸理曰余小臣世居涿郡身遭
五季權綱墮紊堂堂帝位兄也得之斯忽陳橋之變臣亦不可謂之
無力然不矜而不伐盡臣道與弟道何幸母后末命金櫃禪草不肖
之身物望有歸迨皇兄之不豫秖承召於禁闈延入大寢屬以後事
其言曰余陟元后玆難負命龜勉強就那知後世史筆不的不覈人
之情實妄加人之大惡發源於一桂之通要漲波於陳樫（樫一作經）之編
牒蓋由李燾信其無據吳澄錄其私意殊不知燭影之下離席之狀
乃小臣避位之時又不知斧戮地好爲之聲抑兄皇固推之辭大則
君臣義小則骨肉情豈可肆行篡逆同梟獍而自榮縱臣之不爲天
子猶不失富貴其身有何汲汲於得位用輕狀其天倫大抵鼓鍾于
宮聲聞于外莫顯乎隱聖訓不昧苟臣有此不祥神人共知其無狀
雖彼臣民之不言我何面目而居上醜言一發不能容我喙天日在
上不能照肝肺爭信參三殺人誰卞鬼一車載海涸山崩九原之恨

不洩天長地久百世之痛誰雪追懷往事不禁沾臆大畧如此惟皇洞燭匡胤聞之雙眉愁蹙斂衽長跪一一披辭臣以周家之舊臣征遼漢而出師不能禁麾下之欲富貴黃袍煒其加躬豈臣心之所欲日兢兢其懼未終適母后之臨崩發傳弟之遺訓嘗觀田舍翁十萬資產尚不能他人之是倩況神器手自經營貴天子而富四海不與子而與弟在常情而猶殆母命雖曰慇懃不難夫中道之改第念禪受之事古有堯舜國有長君人心可鎮我以公與弟弟豈不以公意與姪爰遵慈命榻前誓約厥後友愛老而彌篤目之以龍行虎步私自賀寸託之得人當灼艾分痛之日不曰恩而曰親及大疾之不起又召之而迎入是豈有他計哉屬社稷之長策倥傯垂絕之哀懷不暇耳聽而心錄百世後傳德昭之言竊恐夫自我口出屏我舊使之官寺去我至親之妻妾然後離席進退從容問我曰傳位之事奈何奈何我雖知其挾私乘機事勢已迫不可訶也但高聲好爲之言亦

憤氣之攸激卒之行楊廣之事鬼神森列其何益可憐吾妻子之寡弱紛踈懾而蒼黃既殺其父與子快若膜之去乎眶役母子托命之言情雖戚矣不亦踈且愚哉以此逆料其情久矣漸之所由來方吾未死之前欲殺之心幾乎蟠積於胷中一朝偃然乃自爲功德昭之促隕非壽詐抱屍而痛哭廷美之憂殂房州無一言哀痛之及君兄何負而弒之弟姪何罪而殺之天理人倫一時幷夷惟幸史氏得知其跡誅意之筆嚴若鈇鉞地下冤魂哭人間公論明千古萬古芳臭異聲彼焉知燭影之隱至今日而呈露兄弟之間不可藏怒既往之事何必深懟最可恨者身得天下十七載之君臨上法堯舜公天下之至心不知竟成奇禍貽慙德於弟昆卒之有四海者非我子孫久假而不歸惡知其非有也無異於烜沙之神叢竟枯苑其誰咎有時乘風臨睨下土陳橋月低汴河樹枯滿目遺跡摠成悽愴人生斯世孰能長保而不滅興亡一丘墟人事千翻覆匡義子孫雖曰世有天

祿徽欽二帝羈死漠北仁高二宗皇嗣乏絶自孝宗以後皆吾之苗裔若顚木之有巹孽亦天命之不替以此自寬足慰宜漠之魂冀帝之少垂明斷費千辭而不殫煩言訖痛哭玉皇亦爲之動容匡義於是面色如土以手擊胷方欲再卞雷電談鋒玉皇麾而止之曰嗟爾匡義不須多言若兄之如此是非又何復論天之與人莫非至善五倫攸叙人道斯辨君臣之義長幼之序各居倫一綱張目擧爾何不恤有同鬼蜮兄雖不道君雖不德在臣當忠在弟當敬而況匡胤爲人心公且正繫重位而授汝諒友愛之天性以言乎君則可謂仁君以言乎兄則可謂仁兄於余何負於汝何虐弒其君及其子孫曾不念相煎之太急宜群儒之掉筆施刀鉅於既骨倘使爾方玉几之初憑勤哀毀之侍藥迨攀髯之不可及讓德昭而歸藩若舜禹之避朱均秉天彝而自存侯謳歌訟獄之攸歸勢將出於不得已然後卽祚須告宅心如水以德昭爲皇太子以廷美爲皇太弟接之以恩待之

以禮身亡之後以次相傳則上不負母后之命下不孤兄皇之賢天理就順人倫歸厚燭影之下詎有此醜公仁之名騰播人口靑史千載大書特書計不出此悔其追諸匡義哭出囚首擗踊余亦推枕寤而有悚知天之哀我蒙瞽引精神而諷諭因追記其始終以爲燭影之賦

燭影賦(촉영부)

西溪 南 趎

띠집에 날이 화창하여 봄의 흥이 바야흐로 유유하여 고요히 옛책 일부를 펴니 송(宋)나라 역사라 그 사이에 촉영(燭影)의 전의(傳疑)의 글씨 흔적이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만고(萬古)에 강랑(江浪)의 시비를 누가 정하여 참이 될 것인가 곧 인정상 차마하여 써 거짓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니 곧 사가(史家)의 기록이 밝게 드리어져 끊고자하나 끊지 못하여 정신이 홀연히 피곤하여 해가 뜨도록 생각에 잠겨 토막잠이 잠깐 이루어졌는데 바람이 나붓거리며 나에게 불어와 넓은 곳을 손가락질하며 올라 가다가 한곳에 당도하니 세계가 넓고 평평한데 그 밖으로 뻗어와 백옥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위래로웠다。그 안의 대궐에 문이 있어 들어가 숩을 즉이고 조심스럽게 옥황상제의 엄한 모습을 엿보니 뜰에 두 장부가 각각 증서를 보듬고 소송을 구하고 있었다。그 용모를 보니 다 비상한 사람들이고 또 그 종도 화려했다。하나는 자칭 광윤(匡胤:宋나라 太祖)라 하고 하나는 자칭 광의(匡義)라고 한다。둘을 대하여 서로보니 깊이

부끄러워 하는것 같았다。 옥황상제가 가로되 슬프다 두 조천자(趙天子)는 각각 그 속에 있는 것을 공소하여 다 해처 보여라 하니 광의(匡義)가 재배(再拜)하고 먼저 말할것을 청하며 가로되 나 소신(小臣)은 대대로 탁군(涿郡)에서 살았는데 몸소 오계시절(五季時節)을 맞아 권세와 기강이 떨어지고 문란하여 당당한 임금 자리를 형이 얻었는데 이에 진교(陳橋)의 변란을 소홀히 할때 신(臣)도 또한 가히 힘이 없었다고 할수 없으나 그러나 좋아하지 않아 치지 않고 신하(臣下)의 도리와 아우의 도리를 다하였다。 다행히 모후(母后)께서 끝으로 금괴를 주고 처음으로 불초(不肖)의 몸에 선위하려 하면서 물망이 돌아가고 있다하니 황형(皇兄)의 예상치 못한데에 미쳐 대궐에 불려가 큰 방으로 들어가니 뒷 일로써 부탁하며 말하길 내가 천자(天子)에 올랐으나 이에 명을 저버리기 어려우니 힘을 써서 억지로라도 나아가라 하며 어찌 후세(後世) 사필가(史筆家)가 적실하게 알릴 줄 알것이냐 사람의 정실이란 망령들어 사람에게 더하는 대악(大惡)이 일계(一桂)의 통요(通要)에서 발원하고 진정(陳樫：樫을 經으로 함)의 편첩(編牒)에서 물결이 넘치니 대개 이도(李燾)로 인하여 그 근거없는 것을 믿고 오징(吳澄)이 그 사의(私意)를 기록하였으니 촉영(燭影)의 아래에서 자리를 뜬 상황을 알지 못하겠다。 이에 소신(小臣)이 자리를 피할때에 또 도끼로 땅을 찍으니 좋게 하려는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다。 아니 형황(兄皇)을 진실로 미루어 말한다면 크게는 임금과 신하의 의리요 적게는 형제의 정인데 어찌 가히 방자하게 임금자리를 빼앗으려는 반역을 하여 한가지로 형제(兄弟)간에 잡아먹는 악인이 되어 스스로 영화스럽고 방종할 것인가。 신(臣)이 천자(天子)가 되지 않은것은 오히려 부귀를 잃지 않고 있는데 그 몸이 어째서 임금 자리에 급급함이 있어 가볍게 그 천륜(天倫)을 상할 것인가。 대개 궁안에서 치는 북이나 종소리가 밖에 들리니 숨는데 나타남 같음이 없다는 성인의 가르침이 어둡지 않는데 진실로 신(臣)이 이런 불상사가 있

었는지를 신(神)과 사람이 같이 그 정상이 없었음을 알 것이다。비록 저 신민(臣民)들이 말을 않을지라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위에서 살 것인가。더러운 말이 한번 발설되면 능히 나의 주둥아리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하늘과 해가 위에 있어 능히 간이나 패를 비쳐 믿기를 다투지 못할 것이다。빽빽하게 사람을 죽여 비록 급하게 죽은 귀신을 한 수레에 싣고 바다가 마르고 산이 무너지는 구원(九原)의 한은 덜지 못할 것이다。하늘이 길고 땅이 오래되어 백세(百世)의 슬픔을 누가 씻어 줄 것인가。지나간 일을 추상한다면 가슴속에 젖어 있는것을 금할 수 없다。대략 이와같으니 오직 황제께서는 통촉해 주십시오 하더라。

광윤(匡胤)이 듣고 두 눈썹을 찡그리며 옷깃을 걷고 길게 끊어 않아 날날이 말을 피력하는데 신(臣)이 주(周)나라의 옛 신하로 요한(遼漢)을 정벌하려 출병할때 장군의 욕심인 부귀황포로 빛남을 그 몸에 더할것을 금치 못했으나 어찌 신(臣)의 마음으로 하고자 한 것이리오。날마다 조심하고 두려워 했는데 얼마 안되어 모후(母后)의 죽음을 맞아 아우에게 전하는 유훈을 보내면서 일찍 시골 늙은이가 십만(十萬) 자산을 가졌으나 오히려 남이 시기하지 않는것을 보았는데 하물며 신기(神器)를 손수 경영하면서 귀하기는 천자(天子)요 부하기는 사해(四海)를 가졌는데、자식에게 주지않고 아우에게 준것은 떳떳한 정에 있으나 위태함 같았다。어머님 명령이 비록 은근하더라도 중도에서 고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생각컨데 왕위(王位)를 주고 받는일은 옛날 요순에게 있었는데 나라에 어른스러운 임금이 있으면 인심이 가히 진압되는 것이라。내가 공(公)으로써 아우에게 주었는데 아우는 어찌 공의(公意)로써 조카에게 주지 않을까、이에 어머니 명을따라 자리 앞에서 서약하니 그 후에 우애가 늙도록 더 두터워 용이가고 범이 걷는것을 보고 사적으로 스스로 부탁한 사람 얻음을 축하하고 쑥을 사르는 분통한 날을 당하여는 은혜라 하지 않고 친함이라 하고 큰 병으로 일어나지 못함에

미처 또 불러서 맞아 드리니 이것이 어찌 다른 계획이 있으리오。사직을 오래 지킬 계획을 부탁하였고 공총하여 슬픈 회포를 끊고 귀로 들을 겨를이 못되어 마음으로 기록하여 백세(百世)의 뒤에 덕소(德昭)의 말을 전하라고 하다。이러한 일들이 대범 내 입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오래부리던 관사(官寺)와 아울러 내게 지극히 친 처첩을 버린뒤에 자리를 떠서 진퇴(進退)가 종용할가 하였는데 내게 묻길 왕위(王位)를 전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요 하니 내가 비록 그가 사심을 끼고 기회를 타는것을 알았지만 일의 형세가 이미 급박하여 꾸짖을 못하고 다만 소리를 높여 좋아하는 말로하나 또한 분개한 기운이 격렬하여 마침내 양광(楊廣)의 일을 행하니 귀신이 쭉 늘어서 열을 지은들 그 무슨 이익이 되리오。가련한 내 처자가 가버리고 약자가 되어 두려워하고 허겁지겁 놀래어 이미 그 아비와 자식을 죽이고 쾌하게 무릎을 끊고 갈것 같으냐。광역(匡役) 모자(母子)의 목숨을 부탁하는 말이 정은 비록 슬프나 또한 소홀하고 어리석지 않느냐 이것으로 거슬러서 그 정을 헤아린지 오래고 점점 유래된 곳으로 가면 바야흐로 내가 죽지 못한 전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몇번이고 가슴속에 쌓였지만 하루 아침에 쓰러진듯 하고 이에 스스로 공을 삼으니 덕소(德昭)의 운명을 재촉함은 수(壽)가 아니다。거짓으로 시체를 보듬고 통곡하니 정미(廷美)의 방주(房州)가 죽은것으로 근심하고 할말없이 애통하니 군형(君兄)을 어찌 저버리고 죽이며 아우나 조카를 무슨 죄로 죽였는고、천리(天理)와 인륜(人倫)이 일시(一時)에 아울러 풀어졌으나 오직 다행히 사가(史家)가 그 자취를 안다。죽일 뜻의 글씨가 엄하기가 도끼 같았으니 지하의 원혼이 인간을 울리고 공론으로 천년이나 만년(萬年)에 밝혀지는 꽃다운 냄새 기이한 명성을 저가 어찌 아리오。촉영(燭影)의 숨겨짐이 오늘에 이르러 들쳐나니 형제간(兄弟間)에 성낼것을 감추어 두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하여 꼭 깊이 생각하는지 가장 한 스럽다。자신이 천하를 얻어 十七年을 군

림하면서 위로는 요순을 법받아 천하(天下)를 공평(公平)하게 하는 지극한 마음이었는데 마침내 기이한 화가 일어나 부끄러운 덕을 형제(兄弟)간에 끼치고 죽을지는 알지 못했으니 천하(天下)를 둔자는 내가 아니다。 자손이 오래 비워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 그 두지 않았음을 아리오。 훤사(烜沙)의 신종(神叢)이 마침내 말라 죽은것에 다름이 없으니 그 누구의 허물인고 때로는 바람을 타고 다달아 밑에있는 땅을 겯눈질 해보니 진교(陳橋)의 달밑에 변하(汴河:黃河로 들어가는 江)의 나무가 말라저 눈에 유적이 가득하나 다 처참하게 되었으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누가 능히 오래도록 보존하여 멸하지 않으리오。 흥하고 망하는 한 언덕은 폐허되고 인사(人事)는 천번이나 번복하는 것이다。

광의(匡義)의 자손이 비록 천록(天祿)이 있다하나 미(微)와 흠(欽) 두 임금은 한북(漢北)에서 패사(霸死)하고 인종(仁宗)、고종(高宗) 두 임금은 황가(皇家)의 사손(嗣孫)이 다 끊어져 효종(孝宗) 이후로부터 다 나의 후손이라 전복된 나무가 싹이 있는것 같으니 또한 천명(天命)이 막히지 않아 이로써 스스로 관용하고 족히 어둡고 막막한 혼을 위로하며 임금이 조금 밝음은 도리어 千가지 말을 끊기를 바라고 번거로운 말을 기탄하지 않고 통곡을 마치니 옥황상제도 또한 거동을 움직이는지라 광의(匡義)가 이에 얼굴색이 흙같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바야흐로 다시 성을 내며 우뢰같은 말을 하려하자 옥황상제(玉皇上帝)가 손짓하여 중지시키고 슬프다 너 광의(匡義)는 모름지기 말을 많이하지 마라。 형(兄)의 이러한 시비를 또 무엇으로 다시 논하려는고 하늘이 사람에게 준것이 지선(至善)이 아님이 없는데 오륜(五倫)을 편바요。 인도(人道)의 판별이라 군신(君臣)의 의(義)와 장유(長幼)의 서(序)는 각각 차례대로 앉아있는 것이니 한번 벼루를 펴고 눈을 들어 너를 어찌 구휼치 않으리오。 한가지로 귀역(鬼蜮)에 있으니 형(兄)이 비록 도(道)로 하지않고 임금이 비록 덕이 없더라도 신하(臣下)

로 있으면 마땅히 충성하고 아우로 있으면 마땅히 공경하여야 한데 하물며 광윤(匡胤)이 인심(人心)이 공변들고 또 정결(正潔)하여 자리를 중히 여기고 너에게 주었으니 우애(友愛)의 천성(天性)을 말로써 헤아리겠는가。 그대는 가히 어진 임금이라고 말하겠는가。 형은 가히 어진 임금이라고 하겠는데 나에게 무엇을 저버리고 너에게 무엇을 학대 했다고 그 임금과 자손을 죽이고 서로 끊는 것은 아주 급함을 생각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여러 유림들이 붓으로 바로잡고 시체를 버리는 형벌을 이미 죽은뼈에 가하니 네가 임금의 훌륭한 자리에 앉은 처음에 부지런히 슬퍼하고 약을 받들어 천자의 죽음이 미치지 못하는데에 미쳤으니 덕소(德昭)에게 양보하고 지방으로 돌아가길 순임금이나 우임금이 주균(朱均)을 피한것 같이 하였다면 천리(天理)의 떳떳함을 잡아 자연히 제후로 존재하다가 송사의 돌아갈 곳의 은덕을 칭송하고 제창하였다면 형세가 부득이 한데로 나온 뒤에 천자(天子)의 자리에 나아가 반포하였다면 마음에 두지않는 것이 물같아 덕소(德昭)를 황태자(皇太子)로 삼고 정미(廷美)를 황태제(皇太弟)로 삼아 은혜로 영접하고 예의로 대우하여 몸이 죽은뒤에 차례로 서로 전하였다면 위로는 모후(母后)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형인 황제의 어짐을 외롭지않게 천리(天理)가 순한데로 나아가고 인륜(人倫)이 두터운데로 돌아갔을 것이니 촉영(燭影)의 아래에 어찌 이런 더러움이 있을 것이냐 공변들고 어진 이름이 사람의 입에 올라 펴져 청사천년(靑史千年)에 크게 특별한 글씨를 써서 이런 후회가 나오지 않게 꾀하라 하니 그를 따르던 광의(匡義)가 울고 나가니 죄수들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피우니 나도 또한 배개를 물리치고 깨어나니 두려움이 있었으나 하늘의 슬픔을 알았는데 내가 몽몽하고 희미하여 정신을 차리고 넌지시 깨우치고 인하여 그 시종(始終)을 기록하여 촉영(燭影)의 부(賦)로 삼는다。

盆松詩

一朶盆莖弱千秋雪意豪誰能伸汝曲直拂暮雲高

한송이 분 줄기는 약하지만
천추(千秋)에 씻을 뜻은 굳세구려
누가 능히 너의 굽음을 펼런지
바로 떨치니 저녁때 끼는 구름만 높네

咏雪詩

落地聲如蠶食綠飄空狀似蝶窺紅

南趎妹氏

땅에 떨어지는 소리는 누애가 밥먹는 것 같고
공중에 나부끼는 모양은 나비가 붉은 꽃을 엿보는 듯 하네

兩賢祠儀式序 丁丑

知縣 李 舒

縣之南十里沙嶝之麓有一葬實惟故巴陵公子李先生墓耶也先生行誼言論爲一世耶宗仰徃在 中宗朝己卯力救趙文正先生見忤權奸來謫是鄉終焉墓於是在爾時則有典籍南公清標峻節與先生齊名而今其遺址在縣之西溪歲乙亥知縣沈文永卽其遺址爲之立祠而享焉余竊自傷兩先生道旣同矣地亦相似而巴陵公遺跡獨泯沒無稱闕焉無俎豆之所此實一大欠典何幸一縣士論齊發將以並享于南公之祠先生后裔佑成等合力醵金以助其享儀買置位田以爲春秋祭享之具今年十月十七日禮始成焉第念列邑建院之弊 朝家禁令自來截嚴無容更議古有鄉先生沒而祀于其社者其此之謂歟

兩賢祠儀式序(양현사의식서)

군(郡)의 남쪽 십리(十里)쯤 되는 사등(沙嶝)의 기슭에 한 무덤이 있으니 고(故) 파릉공

(巴陵公) 이선생(李先生)의 묘소다。 행의(行誼)와 언론(言論)이 일세(一世)의 숭앙하는바 되었는데 지난 중종기묘년(中宗己卯年)에 조문정선생(趙文正先生)을 힘써 구하려다 권세 쥔 간신배들의 미움을 사서 이 고을로 귀양와서 죽으므로 묘소가 여기에 있다。 그때에 전적남공(典籍南公)이 있었는데 의표가 맑고 절개가 높아 선생으로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였고 이제 그 유허지가 군(郡)의 서계리(西溪里)에 있어 을해(乙亥：一八一五)年에 군수(郡守) 심문영(沈文永)이 그 유허지에 나아가 사우를 세워 제사 지냈다。 내가 스스로 두 선생의 도(道)도 이미 같고 지역도 또한 서로 같음을 가련히 여기고 파릉공(巴陵公)의 유적만 홀로 꺼지고 없어져 궐하여진 것을 칭할 수 없고 제사지낼 곳이 없는것이 큰 흠결이었는데 다행히 한 고을의 선비들의 논의가 같이 일어나 장차 남공(南公)의 사우(祠宇)에다 같이 아울러 제사지내기로 하니 선생(先生)의 후손 우성(佑成)이 합력하여 돈을 추렴하여 그 제사지내는 의례를 돕고 위토(位土)답을 사서 춘추(春秋)로 제향지낼 구비를 하니 금년(今年)十月十七日에 제례(祭禮)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생각컨데 모든 고을의 서원을 세우는 폐단이 나라에 금령을 내린 뒤로부터 엄격하여 다시 논의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니 옛적에 향선생(鄕先生)이 죽으면 그 사지(社地)에다 제사지낸 것은 그 이를 이름인가。

郡守 李舒 謹撰

西溪祠序 丙申

知縣 李祖植

本縣西溪祠卽故巴陵君故南學士妥靈之所也兩先生節義之炳

然實爲千秋之耶尊崇而玆邑章甫之耶以建祠矜式者也先我知縣敝立之修葺之祠宇則果成樣蘋藻之禮猶不無寡畧之嘆故余亦有嗣前人之志又因安雅之勤意一依他院享禮以備籩豆之實此而永遵則庶幾有補於諸君子祀享之節

西溪祠序(서계사서)

본군(本郡) 서계사(西溪祠)는 고 파릉군(故 巴陵君) 고 남학사(故 南學士)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두 선생은 절의(節義)의 빛남이 실로 천추(千秋)에 높이 숭배될 분으로 이고을의 유림들이 사우(祠宇)를 세워 공경한 것이다。 나보다 먼저 온 군수들이 창건하고 수리하여 사우(祠宇)는 과연 모양을 갖추었으나 제물을 올리는 예는 오히려 적고 약한 한탄이 있으므로 나도 또한 전 사람의 뜻을 이으려 하는데 인하여 안아(安雅)의 권하는 뜻이 있어 한결같이 다른 서원의 제사지내는 예에 의지하여 제기에 채우는 것을 구비 하였으니 이렇게 하여 길게 따르는즉 거의 제 군자 제사지내는 절차에 보탬이 있으리라。

告巴陵君先生祝

巴陵李先生伏以於赫宗臣立朝正直祭祀有禮士林是式

파릉 이선생(巴陵 李先生)은 엎드려 생각컨데
혁혁한 종신(宗臣)으로
조정에서 정직하였기에
제사지내는 예가 있어
유림들이 이에 법도로 합니다。

告西溪先生祝

西溪南先生伏以文章名節己卯之賢卽祀于墟遺風凜然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은
엎드려 생각컨데
문장(文章)과 명절(名節)은
기묘(己卯)의 현인이라
유허지에 나아가 제사지내니
유풍이 늠름하도다。

西溪祠重修記

進士　吳哲淳

直縣西不遠地有西溪洞即南學士嶽降之所也粵在甲戌春我王考與沈侯文永氏行到此洞周覽左右山川追想先賢遺墟遺跡卓絶高標不屈於人詞章著述播傳於世此地之秀麗精英得之尤多邇來數三百年慨惜其泯滅不稱言於沈侯沈侯以山林養德之君子藹然發尊賢之誠使鄉中多士立祠享之其後戊寅春我王考又與鄉父老稟告于李侯舒氏以巴陵君李先生追享於此祠二先生俱以己卯名賢同被士禍巴陵君則初配於海南後爲　量移於此土因居焉以杖屨之所也祠宇之新敝未免凋殘享祠凡節連有守宰之顧助而未有紓力於院中歲久年深祠宇講堂上漏下濕難以絃歌於其中東傾西圮無以將事於其右事巨力綿幾至荒廢之境吾鄉多士未嘗不摩挲太息者久矣何幸今秋本祠有司柳雅正模金雅璟采甫發此修葺之論於諸章甫孰不曰不可也因爲鳩財於

鄕中不足之財本孫李氏僉員極力擔當祠宇也神門也講堂也增其舊制迄半年而告成當此任者豈不有功於斯文有光於後學乎嗚呼吾道之興廢盛衰有關時運而然歟而兩先生文章道學生並一代壁立之像輝暎百世之下衣儒冠儒之徒不無欽慕繼起於吾鄕則待後日加葺之責亦有其人屬余爲記遂不敢辭焉

西溪祠重修記(서계사중수기)

곧 군(郡)의 서쪽에서 머지않은 땅에 서계동(西溪洞)이 있는데 바로 남학사(南學士)가 태어난 곳이다。지난 갑술(甲戌:一八一四)年 봄에 내 조부(祖父)와 심군수 문영씨(沈郡守 文永氏)가 이 마을에 당도하여 좌우 산천을 돌아보고 선현(先賢)의 유허와 유적을 추상하니 높은 절개 높은 의표는 남에게 굴하지 않고 사장(詞章)과 저술은 세상(世上)에 뿌려져 전하니 이 땅이 수려하고 정미롭고 뛰어남을 얻음이 더욱 많다。내려오는 수 삼백년(三百年)에 그 꺼지고 멸하여짐을 슬퍼하면서도 심군수(沈郡守)에게 말하지 않했지만 심군수(沈郡守)는 시골에서 덕을 기른 군자로 울연히 현인을 존경하는 정성이 일어나 향중(鄕中) 유림들로 하여금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 지내게 하였고、그후 무인(戊寅:一八一八)年 봄에 내 조부가 또 고을 늙은이들과 더불어 이군수 서씨(李郡守 舒氏)에게 품고하여 파릉군 이선생(巴陵君 李先生)을 이 사우(祠宇)에 따라서 제사지내게 하니 두 선생은 다 기묘 명현(己卯 名賢)으로 함께

사화(士禍)를 입었다。 파릉군(巴陵君)은 처음에 해남(海南)으로 귀양 갔다가 후에 이땅으로 옮겨 살면서 쉬신 곳이다。 사우(祠宇)가 새로 지어진 것은 조잔함을 면치 못했으나 제사지내는 모든 절차는 연속적으로 군수(郡守)들의 도움이 있었으나 힘을 서원에다 두지 못하였고 해가 오래되고 나이가 깊어 사우(祠宇)와 강당이 위에는 물이새고 밑에는 습기가 차 그 속에서 공부하기 어렵게 동으로 쓰러지고 서로 무너져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일은 크고 힘은 모자라 거의 황폐될 지경에 이르러 우리 고을 유림들이 일찍부터 손을 문지르며 한숨만 쉰것이 오래되었는데 어찌 다행히 올 가을에 본사(本祠)의 유사 류정모·김경채(有司柳正模·金璟采)君이 수리하자는 논의를 여러 유림들에게 발의하니 누가 옳지 않다고 할 것인가。 인하여 향중(鄕中)에서 돈을 모으고 부족한 재물은 본손(本孫)인 이씨(李氏)들이 힘을 다하여 담당키로 하여 사우(祠宇)와 신문(神門)과 강당(講堂)이 그 옛제도 보다 더 좋게 반년을 넘겨 준공하니 어찌 사문(斯文)에 공이 있고 후학(後學)에게 빛이 있다고 않으랴。

아~ 우리 도(道)의 흥하고 폐하고 성하고 쇠함이 시운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두 선생의 문장(文章)과 도학(道學)은 한 대(代)에 같이 살고 나란히 서있는 상(像)은 백세(百世)의 아래에 빛날 것이다。 유림의 옷을 입고 유림의 관을 쓴 무리들이 흠모함이 없지않아 우리 고을에서 이어서 일어난즉 후일의 수리할 책임도 또한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으라 부탁하기에 드디어 사양하지 아니 하노라。

進士 吳哲淳 謹撰

西溪祠重修記

野隱　柳正模

傳曰德不孤必有隣余讀西溪主享巴陵君實錄而益信聖訓也在昔己卯靜庵以下諸君子遭衰貞之毒陷斧礩之伏當時朝士神褫斂手猶不敢抗章叫閽而先生以麟趾之英非言責之地而憂愛攸激苦辭諍諫特立不撓與金冲庵鄭文翊諸公爛然同歸則其危忠炳節可與日月爭光平生學力之做到何可誣也及其宥還也駐馬於通明山下梧枝洞輒愛山水之幽勝遂止而終焉西溪者鄉之儒賢南公見擯於衰退遯藏修之遺趾而因以自號者也兩賢可謂同德君子居又相接誠非偶然向所謂德有隣者非耶兩賢之祠必於此地者章甫之公論固不待百世而定矣祠之刱在　純廟甲戌時則沈侯文永氏倡儒化於一方也講學之堂具於庚寅官需之供始於丙申齋舍門庖亦隨而煥新廟貌翼肅是誰之賜李侯舒朴候肯源李候相植次第效誠備盡衛護之力有不可忘也鄉人之竪石紀

績亦可尙也而安斯文師奎甫之楣記足徵於後矣獨其祠宇年久頹傷院力耗瘦經紀沒策余以無狀猥夯重修之任籲乎時宰謀諸鄕儒及本孫百方區劃鳩財輪匠掇其舊而增其制閱于四箇月而訖其功本祠之宏規至是而極備此乃朴候齊賓氏輪竭心力一鄕所頌也至其殫誠幷膂於財於役者士林之金在浩趙璟采裔孫之李碩根李秉采李容根俱觀感於後來詎或忽而泯之抑有一說焉先賢有曰有院則以講學不學何以院爲旨哉言乎書院者盖爲多士矜式講肄而作也苟不留心於學則直不過祀賢之所非所以廣敎之方也尊德慕道之心無從而生明倫立身之學無從而講如是而曰士子出入之塲可乎二先生之節行莫非由學而致則吾黨濟濟蹌蹌於斯院者必以學其學行其行爲心然後方不負設院之本意云爾

西溪祠重修記(서계사중수기)

전(傳)에 이르길 덕(德)이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하니 내가 서계사 주향(西溪

祠 主享)인 파릉군 실록(巴陵君 實錄)을 읽고 더욱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믿었다。 옛날 기묘년(己卯年)에 조정암 이하(趙靜菴 以下) 제군자(諸君子)가 남곤 심정(南袞 沈貞)의 독에 찬 모함과 죽이려는 음모를 만나 당시의 조정 벼슬들은 정신이 혼겁하여 손을 거두고 감히 항거하며 무을 두들지 못하였는데 선생(先生)이 덕화(德化)가 빼어나 간원(諫院)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근심하고 사랑함이 격렬하여 괴로운 말로 간하며 특별히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고 김충암、정문익(金冲菴、鄭文翊) 제공(諸公)으로 더불어 빛남이 같으니 그 위태로운 충성과 빛나는 절개가 가히 해와 달과 함께 빛을 다툴것이니 평생(平生)토록 학력(學力)의 주도함을 어찌 가히 해하기리오。 그 플려서 돌아옴에 미쳐 말을 통명산(通明山) 밑 오지동(梧枝洞)에 멈추고 문득 산수(山水)의 고요한 절승을 사랑하여 드디어 여기에서 살다가 죽었고 서계(西溪)라고 하는 곳은 고을의 유현(儒賢)인 남공(南公)께서 남곤(南袞)에게 배척당하여 물러와 숨어서 공부하던 유허지인데 그로 인하여 스스로 별호(別號)를 한 것이다。 두 현인(賢人)은 가히 덕이 같은 군자요 사는 곳도 또 서로 연접하니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옛말에 덕은 이웃에 있다고 한것이 아니냐。 두 현인(賢人)의 사우(祠宇)가 이땅에 있는것은 선비들의 공론으로 된 것이라 진실로 백세(百世)를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것이다。

사우(祠宇)의 창건은 순조갑술(純祖甲戌:一八一四)年인데 그때에 심군수 문영씨(沈郡守文永氏)가 유림들을 불러 일방(一方)에 화(化)하게 함이다。 강학하는 강당(講堂)은 경인(庚寅:一八三〇)年에 갖추워지고 관청(官廳)에서 제수(祭需)를 받친것은 병신(丙申:一八三六)年에 시작되었다。 제숙할 집과 문간과 주방도 또한 따라서 새롭게 빛나니 사당의 얼굴이 나는듯 깨끗하니 이는 누가 준 것인가。 이군수 서(李郡守 舒)와 박군수 긍원(朴郡守 肯源)과 이군수 상식(李郡守 相植)이 차례로 정성을 배플어 갖추고 보호한 힘이 가히 잊지 못할것이 있

으니 고을 사람들이 돌을 세워 업적을 기록하는 것도 또한 가히 바랄 일이다.

안사문 사규군(安斯文 師奎君)의 처마에 걸린 기문(記文)으로 족히 후에 증거가 되리라. 홀로 그 사우(祠宇)는 해가 오래되어 무너지고 상하고 서원의 힘도 소모되고 여워 집을 다스려 갈 계책이 없어 내가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외람되게 중수(重修)의 책임을 어깨에 매고 당시의 군수에게 호소하고 고을 유림 및 본손과 모의하여 백방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물을 널리 모아 옛것을 헐고 제도를 더 새롭게 하였는데 四個月에 걸쳐 주공하니 본사(本祠)의 큰 규모가 이에 이르러 다 갖추워 졌다. 이에 박군수 제빈씨(朴郡守 齊賓氏)는 심력(心力)을 다 바쳐 일향(一鄕)이 칭송하는 바요 그 정성을 다하고 아울러 재물을 모이고 공사를 하는데 힘을 쓴자는 유림(儒林)의 김재호(金在浩)、조경채(趙璟采)와 후손의 이석근(李碩根)、이병채(李秉采)、이용근(李容根)이 후인들에게 감동을 보일 것인데 어찌 혹 소홀하여 민몰될 것인가。 아니 한말을 두련다。 선현(先賢)이 말하길 서원이 있으면 학(學)을 강(講)하는 것이고 배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서원이라고 할 것인가。 서원이라고 하는것은 대개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는데 학업을 강하려고 지은 것이다。 진실로 마음을 학(學)에 두지 않으면 바로 현인(賢人)을 제사지내는 곳에 불과할 것이고 널리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덕(德)을 높이고 도(道)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나 생기고 윤리를 밝히고 몸을 세우는 학문을 어디서나 강해야 한다。 이같이 하여야 선비들이 출입(出入)하는 장소라고 해야 옳을 것인가。 두 선생의 절행(節行)은 학(學)으로 말미암아 이르지 않을 수 없은즉 우리 무리는 엄숙하고 위의를 갖추고 이 서원에 오는자는 반드시 그 학(學)을 배우고 그 행동을 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은 뒤에야 바야흐로 서원을 설치한 본의(本意)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野隱 柳 正 模 謹撰

回文

伏以本縣西溪卽南學士嶽降之地也學士文章節義己焜耀於一代宜清風於百世而前此俎豆之設良有以也今夫撤院之後惟恐歲遠而年久鄕井子弟反爲昧昧於學士之德業光輝則今日吾輩未盡景慕發揮之道也由是之故吾輩中有志之士卽其地而築壇焉代石而識遺址焉率同志數十人歲一禋焉創始之初規模猶有未備何者旣有封壇則守護不可闕也旣有壇直則任料不可無焉且祭品係是薄畧宜可以添潤者矣今春精享之後咸以是爲憂設立壇直幾斗落田土添入數種祭品之意公議齊發仰告于　境內各家宗中一體此意助以如干錢兩俾竣此事永存學士百世淸風之地千萬幸甚

回文(회문)

엎드려 아뢰건데 본군(本郡)의 서계리(西溪里)는 곧 남학사(南學士)가 태어난 곳이다。학

사(學士)의 문장(文章)과 절의(節義)는 이미 일대(一代)에 빛을 냈고 맑은 풍치를 백세에 이롭게 하여 이에 앞서 제사지내는 시설이 본래 있었는데 이제 서원이 훼철된 뒤에 오직 세월이 멀어지고 해가 오래되어 고향의 자제들에게 학사(學士)의 덕업(德業)의 빛남이 어둡게 될까 걱정이 되니 오늘 우리들은 우러러 사모함을 발휘하는 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이러므로 우리 무리들 중에서 뜻있는 선비가 유허지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돌을 깎아 유지를 기록하고 동지 수십인을 거느리고 한해에 한번의 제사를 지내다。창건한 처음에 규모가 구비되지 않음이 있는것 같으니 무엇인가 이미 받드는 제단이 있으면 수호(守護)하는 것을 가히 궐하지 못할 것이다。이미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말아주는 싹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요。또 제사지내는 물품도 박약하니 마땅히 더 불어나야 할 것이라。금년(今年) 봄에 정미롭게 제사를 지낸후에 다 이로써 근심을 하고 제단의 고직 몇 두락의 전토를 사고 수종(數種)의 제품(祭品)을 더 드릴 뜻으로 공론(公論)이 발의되어 경내(境內) 각 집과 종중 전체에게 이일을 고하노니 약간의 돈으로 도와 이 일을 준공케 하고 영원히 학사(學士)의 백세청풍(百世淸風)을 보존케 해 주시면 천만이나 다행 하겠노라。

甲申三月初十日 發文

幼學 柳永默 趙昌駿 柳新模 吳啓烈 安秉俊

柳學默 盧光燁 吳邦烈進士 安重燮幼學 安濟薖

金復鉉 盧光欽 柳寅植 安璋燮

갑신(甲申: 一八八四)年三月初十日 발문(發文) 유학(幼學) 류영무(柳永默)、조창준(趙昌駿)、류신모(柳新模)、오계열(吳啓烈)、안병준(安秉俊)、류학무(柳學默)、노광엽(盧光燁)、오방렬(吳邦烈)、진사 안중섭(進士 安重燮)、유학 안제석(幼學 安濟奭)、김복현(金復鉉)、노광흠(盧廣欽)、류인식(柳寅植)、안장섭(安璋燮)。

西溪壇事實記 辛丑四月上澣

紫谷 趙昌駿

粵在 中廟盛際誕敷文教登崇俊良靜庵先生以明體適用之學羽儀上京衮職是補協贊謀猷將順其美雍熙比屋之化期欲馴致時則及門之徒固多矣在湖之左西溪先生南公是己先生固城人生進文科判書 贈左議政道庵公諱琴於先生爲曾大父道庵公有二子長諱仲文生員次諱秀文生進文科賜暇湖堂官直提學號敬齋生員公是生諱繼身參奉公寓居谷城鵂山下夢長庚星隕入口中以弘治八年乙卯生先生先生諱趎字季膺號西溪生而聰明過人於文學可謂生知參奉公以門户之計教以功令之業戰藝場

屋必居上遊丁卯中進士甲戌登文科賜暇湖堂恩渥既重既而曰人之學文蘊之爲德行行之爲事業彼以文辭而已者陋矣自是謝却紛華潛心經籍請業于靜庵先生靜庵先生曰君之居是何地也先生對曰小子之居隣近天德之山靜庵先生曰有天德便可語王道其要只在謹獨函席摳衣之際酬酢如響想像當時氣像如坐了春風中先生之進德推可知也及己卯之禍作先生同爲被逮越三年壬午易簀享年二十八官典籍而止耳其後二百九十四年　純廟乙亥本縣監沈公文永氏即余族大夫道溪公諱翊臣宅相也治民有法教以禮讓凡所施措學校爲先嘗一日夜夢見先生覺而曰此地有西溪南先生遺墟乎縣人曰鵂山之下是其地耳翌日沈公以脯果醴齊掃地而祭之又喻鄉之章甫建院而春秋饗之往者三十四年戊辰秋撤籩豆焉章甫高山景仰之慕無由得以寓焉於是谷出緡錢修契事買置幾斗落祭田即其院址封土而爲壇磽石而

爲碑繞墻而植卉每歲季春以博碩肥腯之牲蘋蘩蘊藻之菜明薦苾芬式禮備矣今此南君台植熙斗先生之傍裔孫博學好古之士也不遠四百里之裎重趼敲門而訪余曰此邦是先生桑梓之鄉遺文古蹟比他邦爲詳咳唾所及耆友耶傳收拾載錄與先生諸公文字同緝梨棗以爲一家惇史傳之來世夙昔之願子盍叙事實顚末以界之余謂曰先生之遺文燭影賦盆松詩二篇膾炙一世此外雖此邦屢經兵燹無有傳焉惟此二篇實賴天之助神之慳而爲後生之嘉惠何必多乎哉且先進長德之言曰燭影之究其所作微意存焉與佔畢齋吊義帝文同一軌範盆松詩之詩惡紫亂朱之作如非集義所生那能如是亶由於淵源之的門路之正而待之於心發之於辞也尤可見稟賦之剛毅也山川淑氣鍾以生賢振古爲然南方之山無慮數百先生嶽降之地在乎鵂山之下遺風餘韻耀人耳目當與玆山而終始復何待乎區區爲文而後可傳於後歟南君曰唯

唯否否萬世亦朝暮遇也今去先生之世未四百年文獻殘缺傍支雲仍鄕井子弟幾乎昧昧而無徵若又及今不論次而修潤之後百世安知院享之與時消息壇祀之義起之也余不獲辭之固且欽南君述先懿之誠謹書之如右云爾

西溪壇事實記(서계단사실기)

중종(中宗)의 성한 시대에 있어 문교(文敎)가 탄생하여 피어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올려 쓰니 정암선생(靜菴先生)이 체(體)를 밝혀 적용하는 학문으로써 훌륭한 태도로 조정에 출사하여 삼공(三公:영의정·좌의정·우의정 三정승)을 도와 모계(謀計)를 협조하고 도와 장차 그 아름다움을 순하게 하여 죽 늘어져 있는 집을 화락하게 만들어 점차 변화시키고자 기약하니 때인즉 문하(門下)에 미처오는 무리가 참으로 많았는데 호남(湖南)의 좌도(左道)에 있는 서계선생(西溪先生) 남공(南公)도 이분이었다。선생(先生)은 고성남씨(固城南氏)로 생원(生員) 진사문과(進士文科)로 휴가를 얻어 호당(湖堂)에서 글을 읽고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이며 호(號)는 경재(敬齋)다。생원공(生員公)이 휘계신(諱繼身) 참봉공(參奉公)을 낳으니 곡성초산

(谷城鵂山) 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꿈에 장경성(長庚星)이 입속으로 떨어져 들어와 홍치 팔년(弘治八年) 을묘(乙卯: 연산군(燕山君) 一年 一四九五)年에 선생(先生)을 낳으니 선생(先生)의 휘(諱)는 주(趎)요、자(字)는 계응(季膺)이며、호(號)는 서계(西溪)인데 출생(出生)하여 총명이 남보다 초월하여 글을 배울때 가히 낳아서 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할만했다。참봉공(參奉公)이 집안을 융성케 할 계획으로 과거 공부를 가르쳐 재주를 시험하는 과거보는 장소에서 반드시 상중에 있었고 정묘年(丁卯年: 先生二十歲 一五一四)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호당(湖堂)에서 글을 읽고 은혜가 이미 무거웠다。그러하고 이르길 사람의 학문(學文)이란 쌓아두면 덕행(德行)이 되고 행하면 사업(事業)이 되는데 저 문사(文辭)로서만 할 따름인 자는 더러운 것이다 하고 이로부터 번화한것을 사절하고 마음을 경적(經籍)에 잠기고 학업(學業)을 정암선생(靜菴先生)에게 청하니 정암선생(靜菴先生)이 가로에 그대가 사는곳은 어느 지방이뇨 하니 선생(先生)이 대답하길 소자(小子)는 이촌(隣近)의 천덕산(天德山)에서 삽니다 하니 정암선생(靜菴先生)이 말씀하길 천덕(天德)이 있으면 문득 가히 왕도(王道)를 말할만 하다 하고 그 요체는 혼자 있을때 삼가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니 선생님에게 옷을 걷고 다니던 때의 주고받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아 당시의 기상을 상상해 볼때 봄바람속에 앉아 있는것 같으니 선생(先生)의 나아간 덕을 미루어 알겠도다。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날때에 선생(先生)도 한가지로 체포되어 삼년(三年)을 넘긴 임오(壬午: 一五二二)年에 죽으니 향년(享年)이 二十八이요、벼슬은 전적(典籍)으로 그쳤다。그후 二九四年인 순조기해(純祖己亥: 一八一五)年에 본군(本郡)의 군수(郡守)인 심공 문영씨(沈公 文永氏)는 곧 나의 족대부(族大夫)인 도계공 휘익신(道溪公 諱翊臣)의 외손자(外孫子)인데 백성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었고 예양(禮讓)으로써 가르쳐 무릇 정사를 베푸는 바가 학교(學校)로 우선을 삼더니 일찍 하룻밤의 꿈에

선생(先生)을 보고 깨어나 이르길 이 지역에 서계남선생(西溪南先生)의 유허지가 있는냐고 하니 고을 사람이 초산(鷦山)의 아래가 그가 살던 땅이라 하더라。이튿날에 심공(沈公)이 포와 가실과 예주로 땅을 쓸고 제사지내고 또 고을의 선비들을 설유하여 서원을 세우고 춘추(春秋)로 제사지낸지 三十四年이 지난 무진(戊辰:高宗五年 一八六七)年 가을에 서원이 훼철되어 선비들이 선생을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붙일곳이 없는지라 이에 각각 돈꿰미를 내놓아 계를 닦고 몇 두락의 밭을 사드리고 그 서원의 터에다가 흙을 돋아 제단을 만들고 돌을 갈아 비를 세우고 담을 둘러 꽃을 심고 매년(每年) 三月에 크고 살찐 돼지의 희생과 변변치 못한 제수인 수초(水草)의 나물로 제사를 밝게 지내니 공경하는 예는 갖추었다。이제 남군태식(南君台植)과 희두(熙斗)는 선생의 방 후손인데 학문을 넓히고 옛것을 좋아하는 선비라 四百里 길을 멀다고 하지 않고 고생하며 걸어와 문을 두들고 나를 찾아와 이르길 이곳은 선생이 사셨던 고향이라 유문(遺文)과 고적(古蹟)이 다른곳에 비하여 기침 소리가 미친것이 자상하여 늙은이들이 전하는 것을 수습하여 기록하고 선생과 제 공의 문자를 함께 인쇄하여 한집의 수훈한 역사로 삼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옛날부터 소원이었으니 원컨데 그대가 어찌 사실의 전말을 기록하여 남겨주지 않을런가 하니 내가 이르길 선생이 남긴 글중 촉영부(燭影賦)와 분송시(盆松詩) 두편은 일세(一世)에 회자 되었으나 이밖의 것은 비록 이곳이라도 여러번 병화(兵火)를 당하여 전하는 것이 없다。오직 이 두편은 실로 하늘이 돕고 신(神)이 아껴서 후생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되었다고 믿으니 어찌 꼭 많아야만 한것이냐 선배 어른들의 말에 이르길 촉영부(燭影賦)에 대하여 그 지어진 뜻을 연구하면 가는 뜻이 있는데 점필재(佔畢齋:金宗直의 號)가 지은 조의제문(吊義帝文)으로 더불어 동일한 궤범(軌範)이요、분송시(盆松詩)의 시(詩)는 자색(紫色)이 주색(朱色)을 어지럽게 하는것을 미워서 지은것이니 어찌 도의에

서 생긴것이 아니리요、능히 이와같이 함은 오로지 연원의 맞음과 문로의 바른데서 연유하여 마음에서 얻어 말로 발표한 것이니 더욱 타고난 성질이 굳센것을 보겠도다。

산천(山川)의 맑은 기운이 종출하여 현인(賢人)을 낳는것은 태고(太古)때부터 그런것이다。남방(南方)의 산(山)이 무려 수백이지만 선생(先生)이 태어난 땅은 초산(鷦山)의 아래에 있어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사람의 이목(耳目)을 빛나게 하는것이 이 산(山)으로 더불어 같이 할 것이니 어찌 구구하게 글을 만들어 후세에 전할것을 기다릴 것인가。남군(南君)이 이르길 네네 하면서 아니 아니라고 하고 만년도 또한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것이라。이제 선생이 가신지 사백년(四百年)이 못되었으나 문헌(文獻)이 쇠잔하여 없어지고 방지의 먼 자손들과 고향의 자세들이 거의 어두워 증거할 곳이 없고 만일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차제를 논하여 유택하게 닦지않은 후의 백세(百世)에 어찌 서원에서 제사지내게 주어진 때의 소식과 제단에서 제사지내는 의리가 일어난것을 알것인가 하니 내가 사향하는 고집을 얻지 못하고 또 남군(南君)이 먼저 아름다운 덕을 서술한 정성을 흠모하여 삼가히 쓰길 위와 같이 하노라。

신축(辛丑:一九〇一)年 四月 上澣에

紫谷 趙昌駿 謹撰

德巖李先生西溪南先生祭壇碑文

粵昔 靖陵御極選賢授政以啓一治之運而時則有若靜庵趙文正公以王佐之才膺命首出而聲氣收感後又布列堯舜君民若於

身親見之詎謂茅茹之征不勝嬴豕之孚神門夜開善類網打千載一際適以釀志士之涕於汗簡而已李德巖南西溪兩先生在當時人物蓋傑然者德巖先生以正誼明道尊王黜霸之學夙定交於文正公及其當夜拏致也刑物已具殿庭先生急率宗親詣賓廳叩頭極諫涕隨言零退又抗章伸救無耶回避文正之配綾州也先生亦流配于海南觸冒瘴母茹荼攻蓼二十年安之若固然而顏髮勝平昔文正之受後命也悲憤不欲生遣弟西原令珣文以祭之戊戌始得環而還至谷城賞其巖僻止不復北西原令屢懇還京第先生笑曰雲山惟不求吾是而責吾非熙然自全順時而老古人先獲我心行矣無落吾事西溪先生以拔萃之才早擢魁科名聲藉甚南裒欲引而爲己援善辭招致之謂曰豔君文章願得一詩指盆松使賦之即應群曰一朶盆莖弱千秋雪意豪誰能伸汝曲直拂暮雲高裒大恙遂絶之己卯以典籍見罷因無復當世意自谷城移居靈光森溪

而終得年甫二十八然觀乎燭影賦與此詩長風逸韻凛爽襲人俱可以見性情之正而氣節之與秋色爭高矣至寶少愈可貴何必多乎哉此其兩先生梗槩而史乘足徵焉可誣也　純廟甲戌沈候文永倡鄉人士創西溪祠而戊寅醊享李先生而主壁焉俎豆以虔其禮絃誦以講其道迨六十年耶而朝家有祠院之禁遂撤不擧學者無耶於寓慕乃即其神版之瘞而爲壇焉歲一以祀而姑未逮於李先生者寔以祠之址是南先生誕育之耶又其雲仍中絶未免庭堅之不祀忽諸而李先生則不然此情理之緩急者然也然每祀畢常以爲慊方鳩而功未　僝今歲秋遠裔載根君慨然諗諸衆曰猶之慕賢而氣脈之遺自不能不加人一等乎遂躳涓巨貲納祭田明祀事壇壝改觀繼伐豊珉用鎮壇右而惟士林之是聽焉盖衰世之可尚也僉議顯刻而徵辞於不佞噫今西潮日漲風靡波決崇奉西法如天神中華而淪於夷狄民類而化爲鱗介尊賢奉先茫不知爲何

代美譚可勝痛哉是擧也允合於義起禮歸厚之道而無容更訂惟願僉君子毋或曰此足以崇德追遠而益讀其書益頌其詩而益論其世固所以不墜而無忝焉則千秋之返七日之復庶或爲之兆乎不終於辭而書此以寄其勸云

己丑嘉平節　竹溪　安　壎　撰

德巖李先生　西溪南先生　祭壇碑文(덕암이선생　서계남선생　제단비문)

옛날 중종대왕(中宗大王)께서 임금이 되시어 어진사람을 뽑아 다스리는 일을 임명하여 한번 다스리는 운을 열었는데 때는 곧 정암 조문정공(靜菴 趙文正公) 같은이가 있어 왕을 도울 재주로 명령에 응하여 첫번째로 조정에 나가 명성이 감동하니 뛰어난 사람들이 포열하여 요순(堯舜)의 군민(君民)을 자신이 친히 보는 것과 어찌 동료들이 한패가 되어 조정에 출사했다고 할 것인가. 욕심이 많다는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신문(神門)이 밤에 열려 착한 사람들이 한 그물로 타진되니 천년(千年)만에 한번 있는 때에 지사(志士)의 눈물을 문서에다 빚음을 만날 따름이었다. 이덕암(李德巖)、남서계(南西溪) 두선생은 당시에 있었던 인물로 뛰어난 분들이었다. 덕암선생(德巖先生)은 정의(正義)을 바르게 하며 도를 밝히고 왕(王)을 존중하고 패(霸)를 내쫓는 학문(學門)으로 일찍 문정공(文正公：趙光祖)을 사귀기로 정하였고、그

당일 밤 체포되었을때 형벌하는 도구가 이미 대궐의 뜰에 갖추어져 있는지라 굽히 종치는을 인솔하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극하게 간하니 눈물이 흐르고 말이 막혔다。 물러나와 또 상소로 항거하여 회피할 곳이 없는이를 신원하여 구하니 문정공(文正公:趙靜菴先生)은 능주(綾州)로 귀양가고 선생(先生)도 또한 해남(海南)으로 귀양갔는데 산천(山川)의 악기가 참혹하고 쑥 뿌리가 이어졌는데도 이십년(二十年)을 편안하게 지내길 본래부터 그러한 것같이 하니 얼굴과 수염등이 평소(平素)보다 좋았다。 일찌기 문정공(文正公)이 사약을 받았을 때에 슬프고 분하여 살고자 아니하였고、 아우 서원령(西原令) 순(珣)을 보내어 제문(祭文)으로 제사지내고 무술년(戊戌年)에 처음으로 풀리게 되어 돌아오다가 곡성(谷城)에 이르러 그 암벽을 구경하다가 그치고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서원령(西原令)이 여러번 서울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절하게 말하였지만 선생(先生)이 웃으며 이르길 구름이 걸린 산이 나의 옳음은 구하지 않고 나의 그른것만 책망하니 기쁜듯이 스스로 온전하게 하고 때를 순하게 하여 늙으련다。 옛사람이 먼저 내 마음을 거두워 갔으니 내일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서계선생(西溪先生)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재주로 일찍 과거에 합격하여 명성이 자심터니 남곤(南袞)이 끌어들여 자기의 후원군으로 삼고자 좋은말로 초청하고 이르길 그대의 문장(文章)이 부러우니 한 시(詩)를 얻길 원한다고 하고 분송(盆松)을 가리키며 부(賦)를 지으라고 하니 곧 소리를 응하며 이르길

「一朶盆蓬弱(일타분경약) 千秋雪意豪(천추설의호) 誰能伸汝曲(수능신여곡)
直拂暮雲高(직불모운고)」

한송이 분줄기는 약하지만

千秋(천추)에 씻을 뜻은 굳세구려
누가능히 너의 굽음을 펼런지
바로 떨치니 저녁때 끼는 구름만 높네。

라고 하니 남곤(南袞)이 크게 꾸짖고 드디어 절교하다。

기묘(己卯)에 전적(典籍)으로 파면 당하고 다시는 세상에 나갈뜻이 없어 곡성(谷城)에서 영광군 삼계면(靈光郡 三溪面：只今은 長城郡에 속함)에 이사하여 지내다가 죽으니 나이가 겨우 二十八세 였으나 그러나 촉영부(燭影賦)와 이 시(詩)를 보면 긴 품성과 슬픈 운치가 늠름하고 상쾌하게 사람에게 전해오며 한가히 성정(性情)이 바르고 기절(氣節)이 추색(秋色)으로 더불어 서로 높다고 다툼을 볼 것이다。지극한 보배는 적어야 더욱 귀한 것이라。어찌 꼭 많아야만 하느냐 이것이 두 선생의 대강이요 역사의 기록에서 족히 증거하니 가히 속이리오。

순조갑술(純祖甲戌：一八一四)年에 심군수 문영씨(沈郡守 文永氏)가 고을 인사(人士)들을 볼러 서계사(西溪祠)를 세우고 무인(戊寅：一八一八)年에 이선생(李先生)을 아울러서 제사지내고자 주벽(主壁)으로 하고 제사지내며 그 예를 경건히 하고 글을 읽으며 그 도(道)를 강한지가 六十年이 되었는데 조정에서 사원(祠院)을 금하라는 영(令)이 있어 드디어 훼철하고 다시 짓지 못하니 학자(學者)들이 우모(寓慕)할 곳이 없어 이에 그 신판(神板)을 묻은 곳에 나아가 제단을 만들고 일년(一年)에 한번 제사 지냈으나 아직 이선생(李先生)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사우(祠宇)의 터가 남선생(南先生)이 탄생하여 자라난 곳이요、또 그 후손이 중간에 끊어져 정견(庭堅)에서 제사지내지 않는 소홀함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오。이선생(李先生)은 그렇지 않다。이는 정리(情理)의 완곡함을 가지고 그런 것이다。그러나 매양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에 차지않아 바야흐로 재물을 모으려 했으나 공(功)을 이루지 못했는데 금년(今年) 가을에 먼 후손 재근군(載根君)이 슬픈듯 여러사람들에게 고하길 오히려 어

진이를 사모하고 기맥(氣脈)의 끼침이 자연히 다른 사람보다 한 등급 더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드디어 몸소 큰 돈을 내 놓고 제전(祭田)을 드려놓아 제사 지내는 일을 밝히니 제단의 담이 보기좋게 되고 이어 큰 비를 깎아 제단의 오른편에 세우니 오직 유림(儒林)들의 말을 들음이라。 쇠잔해지는 세상에서 가히 숭상할만한 일이다。 여러 사람의 의논으로 새겨서 나타나게 하기로 하고 글을 못난 나에게 명하니 아~ 이제 서양(西洋)의 풍조가 날로 팽창하고 바람에 쏠리듯 물결쳐 서양법(西洋法)을 숭봉하길 천신(天神)같이 하고 중화(中華)가 이적(夷狄)에게 빠지고 백성이 무너져 어류가 되니 현인(賢人)을 사모하고 선조를 받드는 것이 아득하여 어느대에 미담이 될줄 알지 못하니 가히 슬픔을 이기랴。 이 일은 의리를 일으키고 예가 후한데로 돌아가는 도리에 합당하고 다시 정정함을 용납치 않으니 오직 바라옵건데 모든 군자(君子)는 혹시나 이것으로 덕을 숭상하고 멀리 추모하는데 족하다 이르지 말고 더욱 그 글을 읽고 더욱 그 시(詩)를 외우고 더욱 그 세상을 의논하면 진실로 떨어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을 것인즉 천추(千秋)가 도리어 七日로 돌아올 것이니 혹 그 조짐이 된 것인가。 끝내 사양 못하고 이를써서 그 권함에 붙이노라。

己丑(一九四九)年　竹溪　安　壎　謹撰

西溪壇任員錄 自庚辰

庚辰設壇　有司　安濟學

辛巳　有司　柳祥默

己丑　有司　盧光鏞

吳始英

丁亥　有司　安濟奭　趙龍燮
庚寅　有司　柳寅植　柳元默
有司　洪在赫　丙申　有司　高在珪
辛卯　有司　安秉琡　鄭淵德
有司　盧光鏞　丁酉　有司　吳致潤
壬辰　有司　吳洋善　趙昌弼
有司　吳邦烈　戊戌　有司　盧光鏞
癸巳　有司　盧光準　柳河永
有司　吳致潤　己亥　有司　盧光欽
甲午　有司　趙愚燮　鄭淵俊
有司　柳俊默　庚子　有司　吳基準
乙未　有司　趙春燮　張極愼
有司　盧景壽　辛丑　有司　趙昌圭
柳寅錫　金龍培

德溪祠祠誌跋

嗚呼小人之禍從古以然矣何代無之乎大舜放四凶孔夫子誅少正卯皆有以也夫不然未有不亡國者也若唐之盧杞宋之秦檜其禍曾如何哉如我國之南袞沈貞其惡有浮於杞檜耳惟我中宗以有爲之主當國家全盛之運登庸賢良擢用趙文正於是乎群英冲斥朝著堯舜之聖熙之治不日將見而袞貞輩蔽聰迎合狐鼠百端縱毒肆虐竟成己卯之獄狀殺忠良竄逐善類使五百年文化之機墮地釀成後日亡國之大禍罪在社稷毒流生民言之痛心尚忍言哉時我兩先生皆以邵德碩學比肩幷進身被其禍一未得展其所蘊於當世使黎庶未得蒙其澤飽喫困厄而卒余讀斯編自不覺髮之竪而血之熱矣縱未能生於當日刀二賊之首而恨則尚有未窮者也嗟乎皇天降喪我國家不能使聖主賢臣誅得凶逆如大舜孔夫子開我文明而反被杞檜之慘變天乎人乎命也夫若袞貞輩分

身首於生之日碎骨髓於死之後罪尙有餘矣余書凶姦之禍於卷末以誅二賊使五百年未見至治之罪書興亡之跡於行間以示後來爲國者之龜鑑而不獨止一祠誌之顚末而已云爾

庚戌四月二十日後學 唐城 洪 瀾 謹跋

德溪祠祠誌跋(덕계사사지발)

아~ 소인(小人)의 재화는 예로부터 그런것이다。어느 시대(時代)인들 없을소냐。순(舜)임금은 사흉(四凶)을 내쫓고 공자(孔子)님은 소정묘(少正卯)를 배었으니 다 그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망하지 않을자 있지 못하리라。당(唐)나라의 노기(盧杞)와 송(宋)나라의 진회(秦會)같은 사람은 그 화(禍)가 일찍 어떠하였는가。우리나라의 남곤 심정(南袞 沈貞) 같은 사람은 그 악이 기회(杞會)보다 더함이 있다。오직 우리 중종(中宗)께서 주상(主上)이 되시어 국가(國家)가 전성시기의 운을 만나서 어진 사람들을 올려 쓰는데 조문정공(趙文正公)을 발탁하여 쓰니 이제야 여러 영걸들이 하늘을 대지를듯 나타나 조정에 요순(堯舜)의 호희(皞熙)의 정치(政治)가 나타날 것 같더니 그날을 장차 보지못하고 남곤 심정(南袞 沈貞)의 무리가 임금의 총명을 막고 여우나 쥐같은 사람들과 영합하여 백가지로 독을 놓고 해학을 하여 마침내 기묘(己卯)의 옥사(獄事)를 일으키고 충성스러운 어진 사람들을 죽이고 착한 사람을 귀양보내고 쫓아내어 오백년(五百年) 문화(文化)의 기틀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여 후일 나라를 망치는 큰 화를 양성하니 죄(罪)가 사직(社稷)에 있고 독(毒)이 백성에게 흐르니 말하려도 슬픈 마음으로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그때에 우리 두 선생은 다 밝은 덕과 큰 학자로써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나아가 몸소 그 화를 입고 하나도 그 쌓여 있는것을 당세(當世)에 전개(展開)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덕택을 무릅쓰지 못하게 하고 고궁한 처지를 한탄하다 죽으니 내가 이 책을 읽고 스스로 머리끝이 서고 피가 끓는것을 깨닫지 못하고 능히 당일(當日)에 태어나서 두 적(賊)의 머리를 칼로 베지 못한것이 한인즉 오히려 다하지 못함이 있다。 슬프다 황천(皇天)이 상(喪)을 내리사 우리 국가가 능히 성주(聖主)와 현신(賢臣)으로 하여금 흉역(凶逆)의 무리를 죽이길 순(舜)임금과 공자(孔子)님 같이 하여 우리 문명(文明)을 열지 못하고 도리어 기(杞)와 회(檜)의 참변을 입었으니 하늘의 짓인가 사람의 짓인가 천명(天命)이니라。 남곤 심정(南袞 沈貞)같은 사람은 몸과 머리를 살았던 날에 나누고 골수를 땅에 떨어뜨린 후에도 오히려 남음이 있으리라。

내가 흉한 간신들의 재화를 책끝에 써서 두 적(賊)을 베어 오백년(五百年)동안에 이상적인 정치를 보지 못하게 한 죄(罪)로 하여금 흉망의 자취를 줄사이에 써서 후인들에게 보여 나라를 위하는 자들의 귀감으로 삼아 홀로 한 사우의 지(誌)의 전말에 그치지 않게 할 따름이다。

庚戌(一九一〇)四月二十日　後學 唐城 洪 瀾 謹跋

德溪祠誌跋

祠有誌蓋古也有祠而不能無誌欲其祠之故實之不爲杞宋之無徵也奚欲其徵也不徵則道不見道不見則其始之非不欲爲可繼也而其終也或至於怠怠焉廢矣此誌之所以不可闕於祠者而誌能使倡之者有以啓繼之者之爲可遵繼之者有以溯倡之者之爲能先而惓惓焉兢兢焉則祠豈有不傳遠者乎浴川之德溪祠即我先祖德巖先生及西溪南先生聯享之所也祠之設蓋久而中爲邦禁所撤今焉復設通今古而鄉中先後輩之於此祠其用誠至矣則又不可以無追繹先誌之意而續修者也盧友甲泳發其議而得衆諾仍着手於刊役功告訖凡祠之所以經紀之顛末及儒林與本孫協力共成之實皆載焉嗚乎此可以足徵耶雖然徵之以誌又不若徵之以心夫祠之所尊道之所存也兩先生所以致樹立於當日者如彼其卓卓也受薦享於百世者若是其縣縣也然寔由乎道明德立之效而要其歸又不過曰一心之治不治如何耳凡我後生盍各

勉旃一根雖甚憒陋今於誌成之日不能無一言以識其所感于中者如右是役也儒林之柳相烈徐鍾植本孫之李有根李昌根最賢勞云

檀君紀元四千三百三年庚戌六月上浣

德巖先生後孫 李一根 謹跋

德溪祠誌跋(덕계사지발)

사우(祠宇)에 지(誌)가 있는것은 대개 옛날의 일이다。사우(祠宇)가 있으면 능히 지(誌)가 없지 않는것은 사우(祠宇)의 사실이 기송(杞宋)의 증거없는 것이 되지않게 하고자 함이라。

어째서 그 증거를 두고자 하는가 증거를 못한즉 도(道)가 보이지 않고 도(道)가 보이지 않은즉 그 시작함을 가히 계속하고자 아니함이 아니나 끝내는 혹 태만한데에 이르고 태만하면 폐하여지는 것이다。이 지(誌)의 가(可)히 사우(祠宇)에 궐하지 못할것은 지(誌)가 능히 창(倡)한 자(者)로 하여금 이어갈 자의 준칙이 되게함이 있고 이을자로 창(倡)한자를 소급하여 능히 먼저함이 있게하여 정성스럽고 조심하면 사우(祠宇)가 어찌 멀리 전하지 못할 곳이 있으리오。곡성(谷城)의 덕계사(德溪祠)는 곧 우리 선조 덕암선생(德巖先生)과 서계남선생

(西溪南先生)을 을 연하여 제사지내는 곳이다。사우(祠宇)가 시설(施設)된지는 대개 오래 되었는데 중간(中間)에 나라의 금령(禁令)으로 훼철되었다가 다시 설립하니 고금(古今)을 통하여 향중의 선후배(先後輩)들이 이 사우(祠宇)에 대하여 쓴 정성은 지극하였은 즉 또 선지(先誌)의 뜻을 추역(追繹)하여 속수(續修)한 것이다。

노우갑영(盧友甲泳)이 그 논의(論議)를 발의하여 여러 사람의 승락을 받고 이어 발간하는 일에 착수하여 발간하는 공을 끝마치니 무릇 사우(祠宇)를 경영하는 전말과 유림(儒林)과 본손(本孫)의 협력(協力)으로 함께 이룩한 실상을 다 실었다。아~ 이것이 가히 족한 증거가 되는가 비록 지(誌)로써 증거하는 것은 또 마음으로써 증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는 것이니 대범 사우(祠宇)를 높이는 것은 도(道)가 존재하는 바이다。두 선생이 이루어 놓은것을 당일에 심어 세운것이 저렇듯 뛰어나니 천거하는 제사를 백세(百世)에 받을것도 이와같이 면면(綿綿)하리라。그러나 실로 도(道)가 밝고 덕(德)이 선 효력에서 말미암아서 그 돌아갈 것을 요함이오 또 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여하(如何)에 불과한 것이다。무릇 우리 후생들은 어찌 각자가 힘쓰지 않으련가。일근(一根)이 비록 흐리멍덩하고 고루하나 오늘 사지(祠誌)가 이루어지는 날에 능히 한 말이 없을 수 없어 가슴속에 느낀바를 기록하길 위와같이 하고 이 역사에 유림(儒林)의 류상렬(柳相烈)、서종식(徐鍾植)과 본손(本孫)의 이유근(李有根)、창근(昌根)이 가장 현로(賢勞)한 사람들이다。

檀紀四三〇三年 庚戌(一九一〇)六月上浣

德巖先生後孫 李 一 根 謹跋

一九九七年 九月 十日 印刷
一九九七年 九月 十五日 發行

國譯 德溪祠誌

發行處 : 谷城文化院
發行人 : 金 吉 榮
印刷處 : 清進文化社
光州廣域市 東區 錦洞一〇一一
電話 : (〇六二) 二二三一四三四六

※ 이 冊은 國費 및 郡費로서 發行된 것임。